



주일학교의 부흥에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일까? 교회마다 여성성경학교가 한창인 가운데, 어린이들이 즐겁게 물놀이를 하고 있다.

주일학교 대부흥을 위한 중요한 비결들

인사, 명찰, 빈 의자, 전도, 적극적 관리, 제일 중요한 것은 말씀

차세대 복음화는 모든 교회가 고민하는 문제지만 특히 이민교회에서는 더욱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이에 남침례회 내의 인기 칼럼니스트로 꼽히는 다이애나 데이비스 씨가 "주일학교 부흥 방법"이란 제목으로 몇가지 팁을 교단 신문인 BP뉴스에 소개했다.

그는 먼저 "주일학교 혹은 소그룹이 지속적으로 새로운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하고 있는가"라고 물었다. 그리고 "이를 위한 몇 가지 방법을 소개한다"고 밝혔다.

먼저는 매우 활발하면서도 환영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놓는 것이다. 간단한 다과를 준비해 놓고, 음악이 흘러 나오는 교실로 들어오는 학생들을 자연스럽게 분위기 속에서 환영한다. 그리고 학생들이 일찍 와서 모임을 준비할 수 있도록 격려해 준다.

학생들이 새로운 친구가 오면 잘 인사하도록 미리 가르쳐 두는 것이 좋다. 새로운 친구를 잘 포용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어야 한다. 이런 분위기에 역시 인사가 최고다. 데이비스 씨는 아주 고전적 방법인 명찰을 추천한다. 6피트 거리에서 읽을 수 있을 정도로 큰 명찰을 달고 있으면 잘 모르는 친구와도 인사하게 된다. 새로운 친구가 오면 임시 명찰을 만들어 달아 주고 "다음 주에 꼭 진짜 명찰을

줄게"라고 약속하라.

인사를 잘하게 하는 것과 동시에 명찰의 중요한 포인트는 이미 서로를 잘 아는 학생들도 명찰을 달아서 새로운 사람이 "나만 왜 명찰을"이란 이질감을 느끼지 않는 것이며 다음 주에 진짜 명찰을 갖고 싶게 만드는 것이다.

한 번 모임에 잘 참석했다면 그 다음은 관리다. 이메일이나 전화 번호를 꼭 확보해라. 보통 교회 분당에 보면 새신자 등록 게시판에 사진이 붙곤 한다. 그것처럼 새로운 친구들의 리스트를 만들고 환영해 주어야. 데이비스 씨는 그들의 이름에 별표를 붙여 놓고 빨리 그 별표를 떼어내기 위해 목표를 세우라고 한다. 즉, 새 친구를 환영하고 그가 어서 적응해서 새신자 딱지를 떼도록 하란 말이다.

주일학교나 소그룹 공간을 아름답게 꾸미는 것도 중요하다. 교회의 허가를 받아서 페인트도 칠하고 그림도 그리고 꾸며 놓으라. 마치 학생들이 자신의 방처럼 느낄 수 있도록 말이다. 학생들이 예배드리는 사진, 기도하는 사진, 즐거워 하는 사진을 붙여 놓는 것도 큰 도움이 된다.

가끔씩 공간의 배치를 바꾸거나 의자의 방향을 바꾸는 등 변화를 주어야 한다. 반원으로 의자를 배치했다면 일렬로 배치해 보는 것도 좋다. 선생님의 테이블도 좋은 변화가 될 수 있다.

이 배치에서 한가지 중요한 팁은 빈 의자를 의도적으로 두란 것이다. 새로운 친구가 왔을 때 빈 의자가 없으면 그는 마음이 "상당히 썰렁"해 질 수 있다. 이미 주일학교에 출석하는 학생들에게 "저 빈 의자를 내 친구로 채우라"는 도전을 줄 지도 모를 일이다.

그 다음은 제일 중요한 것. 바로 말씀이다. 인생을 변화시키는 말씀 공부 가 있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다른 것을 앞세운 것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 그런 점에서 예배 시간을 정확히 지키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새 신자에게 교회 방문 후 첫 72시간은 매우 중요하다. 주일학교에서도 성인과 마찬가지로 전화나 이메일, 개인적 방문이나 심방을 통해 그들을 붙잡아야 한다. 데이비스 씨는 "주일학교 후 며칠 내에 그들을 후속 모임에 초대해 식사하거나 교제하며 학생들이 서로를 알게 하라"고 조언한다.

주일학교에서는 정체되거나 부흥하거나 양단 중 하나다. 기왕이면 부흥하는 쪽을 택하자. 가만히 앉아서 부흥할 수 없다. 전도의 의지를 갖고 새로운 사람들에게 접근하고 새로운 주일학교 클래스를 계속 확장해 가야 한다. 보조 교사들을 양육해서 정교사로 키워가고 학생들을 전도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들을 기획해라. 김준형 기자

2020년 세계 기독교인구 '26억명' 유럽·미주↓ 亞·아프리카↑

고든콘웰, 지역별변화 포함 연구
 오순절파 은사주의 '계속 성장'

2020년경 세계 기독교 인구에 대한 증가 전망이 제시됐다.

고든콘웰신학교 부설 세계기독교연구센터(Center for the Study of Global Christianity)는 19일 '세계의 변화 속 기독교, 1970-2010(Christianity In Its Global Context, 1970-2010)'이란 제목 아래 진행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미국 고든콘웰신학교 부설 세계기독교연구센터가 2020년경 세계 기독교 인구 변화에 관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유럽과 북미의 교인 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아시아와 아프리카에서의 교회 성장이 기독교 인구의 전체적인 증가를 이끌 전망이다.

연구는 21개 UN 국가들에서 1970년부터 2010년까지 일어난 기독교 인구 수의 변화를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2020년경의 변화에 대한 전망을 이끌어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우선 전 세계

적으로 현재 23억5천만여 명인 기독교 인구는 7년 후에는 26억 명 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같은 증가는 북반구 기독교 인구의 지속적인 감소에도 불구하고, 남반구에서 멈추지 않는 기독교 교회의 성장에 기인하는 것이라고 연구팀은 설명했다.

유럽·미국 기독교 인구 '점차 감소'

유럽에서 기독교 인구는 동유럽 공산주의 체제의 붕괴로 인해 1970년의 75%에서 2010년 78.6%로 증가했다. 그러나 2020년경에는 그 수가 78%로 감소할 전망이다.

연구팀은 "유럽에서는 현대과학의 발전과 불가지론의 확산으로 인해 종교가 하나의 신화나 미신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급격한 정교분리로 인해 국교로서의 기독교가 사라지면서 사람들은 더 이상 교회에 관심을 두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 2면으로 이어짐
 손현정 기자

성도는 물론 부목사에게도 좋은 담임목사 되는 법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담임목회자가 될 수 있을까? 탁월한 설교, 성령충만한 기도, 교육과 상담 등의 영역 은사가 필요할 것이다. 그런데 교회 구조상 목회자도 교회를 섬기는 행정적 리더십에 숙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의 재능도 필요할 것이다.

저명한 기독교 저술가이자, 교회 컨설팅 사업가이며 분석가인 톰 레이너 박사(라이프웨이리서치 대표)가 이 질문에 답하는 글 "Ten Ways to Be a Better Pastor: Church Staff Perspective"를 발표했다. 이 글은 담임목회자가 부목회자 및 교회 직원들



과 잘 소통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볼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개방적인 태도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교회를 함께 섬기고 있는 부목회자, 행정 직원 등과 대화함에 있어서 열린 마음과 태도를 갖고 있어야 한다. 물론, 이는 전 성도들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다.

▶ 4면으로 이어짐
 김준형 기자

감옥과 수용소에서도 피어나는 사랑과 신앙, 통찰 ▶ 16면

다음 주 신문 휴간합니다

Sarang Healthcare Ministries

32년 전통의 주류사회 크리스천 플랜

건강보험료를 **확** 줄일 수 있습니다.

www.saranghealthcare.com 213-986-8119

회원단체 CTS AmericaTV GBC CGNTV USA

나라정비

유럽차 전문점

SMOG CHECK

323.734.4881

월~금: 8am~6pm
 토: 8am~5pm

나라오토텐트

범퍼·도어·바디복원

무료견적·Rent Car

1201 S.Western Ave, LA 웨스트턴과 12가

2013년도 실버드림대학 가을학기 개강

너는 센 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네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레위 19:32)

수강신청안내

- 학과 수업 내용** * 개설과목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생활영어1 / 컴퓨터 / 건강체조 / 서예 / 바둑 / 노래교실 / 공예 / 뜨개질 / 성경영화 / 월별특강
 * 컴퓨터 과목 신청시 컴퓨터는 개인이 별도 구입해야 합니다. (노트북 \$350~\$500 예상)
 * 공예과목 신청시 일정 금액의 재료비가 있습니다.
- 학기 일정 안내**
 1)기간 : 8월22일~11월 21일(14주간) 매주 목요일
 2)시간 : 오전 9시 ~ 오후 12시 30분
 3)장소 : 나성순복음교회 교육관
- 대상 : 에녹회 회원 및 60세 이상 어르신 (선착순 120명까지)**
- 학비: 한 학기 \$30.00**
- 등록기간: 8월 4일(주일) ~ 8월18일(주일)**
- 접수 및 문의처 :**
 (솔로몬 지혜원 앞) 나성순복음교회 323-913-4499
 (담당교역자: 서미수 전도사 / 부장: 지길준 집사)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인사드립니다.

실버사역의 교회교육은 하나님의 뜻이며 시대적 사명입니다. 실버드림대학은 에녹회 회원 및 60세 이상의 어르신들로 하여금 자기 정체성을 이해하고, 자기 가치를 발견하며 자기 소명을 따라 하나님과 이웃과 자신을 위해 용기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데 목표를 두었습니다. 실버드림대학은 사회와 세계에서 그리스도의 증언자요, 봉사하며 섬기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교육하는 대학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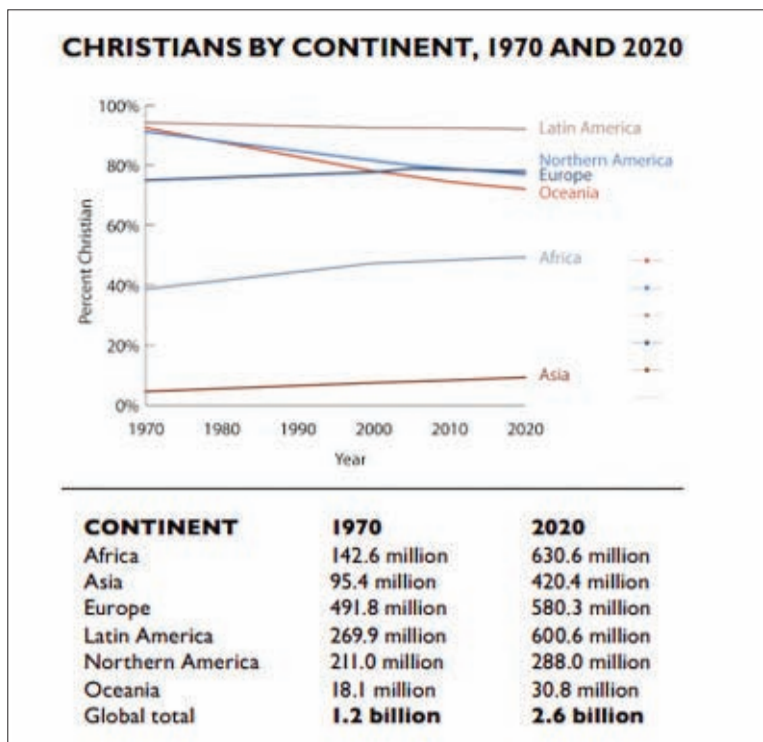
실버드림대학은 본 교회의 에녹회 회원들 그리고 60세 이상의 어르신분들과 더 나아가 한인사회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성숙한 믿음 생활과 여가 선용을 위해 그리고 건강하고 보람있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여러가지 과목들을 개설하였습니다.

준비된 노년은 아름답습니다.
 행복하고 건강한 실버드림대학으로 오십시오.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4102





고든콘웰신학교 부설 세계기독교연구센터가 2020년경 세계 기독교 인구 변화에 관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아시아 2배 성장, 아프리카도 10%이상 증가 오순절파·은사주의 교회 '교세 확장'

» 1면으로부터 기사 받음

북미의 경우도 불가지론이 40년만에 세 배 이상 확대되어 기독교에 이은 두 번째 '종교'로 위세를 떨치고 있는 가운데, 기독교 인구 수는 앞으로 더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미국의 기독교 인구는 1970년 90.9%에서 2010년 80.1%로 줄었으며, 2020년에는 78.1%로 더 축소될 것으로 관측된다.

북미 전체의 기독교 인구 감소에 지대한 영향을 준 캐나다의 경우 1970년 94.5%에서 2010년 69.4%로 급격한 변화를 거쳐, 2020년에는 66% 가량이 될 것으로 연구팀은 내

다봤다.

이같은 감소는 남반구인 아시아와 아프리카에서의 기독교인 수의 증가로 어느 정도 상쇄될 전망이다.

아시아와 아프리카는 기독교 인구가 가장 활발히 늘고 있는 지역으로 꼽힌다. 아시아는 1970년 4.5%에서 2020년 9.2%로, 아프리카는 1970년 38.7%에서 2020년 49.3%로 각각 기독교인 수가 늘어날 것이라고 연구팀은 분석했다.

반면, 남반구에서도 남미의 경우에는 1970년 94.2%에서 2020년 92.1%로 기독교 인구 수가 감소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여기에 연구팀은 기독교 인구가 많은 지역에서 감소하고 있지만, 전 세

계적으로는 증가하고 있는 또다른 이유로 오순절파와 은사주의 교회의 성장을 들었다.

오순절파와 은사주의 교회는 북반구와 남반구 모두에서 교세가 확장되고 있다. 이들은 전체 기독교 인구 수가 증가하는 속도의 두 배로 성장해 2020년경에는 전체 기독교인 가운데 27%가 오순절파 또는 은사주의 교인일 것이라고 연구팀은 밝혔다.

이외에도 전 세계적인 복음주의 교회의 성장과 아프리카 지역에서의 로마 가톨릭과 성공회 교회의 지속적인 영향력이 전 세계 기독교 인구 수의 증가를 가능케 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하비로비, 지방법원서 보건복지부 상대로 승소

직원들 피임 및 낙태 보험료 납부 의무 면제



하비로비점 전경

미국지방법원의 조 히튼(Joe Heaton) 판사는 지난 19일 하비로비 상점에 대해 미국 보건복지부(HHS)의 수정법안 적용을 한시적으로 예외로 한다고 밝

혔다. 원래 이 수정법안에 따르면, 업체는 모든 직원들의 피임 및 낙태에 들어가는 보험료를 부담해야 한다. 하비로비 업체는 수정법안이 기독교적인 신

념에 위배된다며 보험료 납부를 거부해 왔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하비로비 본사가 위치한 오클리호마 시티(Oklahoma City) 법원에서 하비로비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 판결은 연방 대법원의 항소 여부가 결정되는 10월 1일까지 유효하다.

그동안 하비로비측의 입장을 대변해 온 베크트종교자유재단(the Becket Fund for Religious Liberty)은 "오늘 연방 법정은 하비로비측이 제시한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번 승리는 10번째 순회항소법원에서 5대 3의 판결로 '수정법안 아래, 하비로비가 종교를 실천할 수 있다'는 결정을 내린 지 한 달도 지나지 않아서 나왔다"고 전했다.

베크트종교자유재단의 법무 자문위원이자 수석 변호사인 카일 던칸(Kyle Duncan)은 "현재 흐름이 HHS

에 불리하게 바뀌었다"고 말했다.

재단에 의하면, 히튼 판사는 "이러한 어려운 이슈들을 해결함에 있어서, 어떤 개인 혹은 기업에게도 해를 끼쳐서는 안된다는 사실을 담보하는 데 상당한 공적 유익이 있다"고 판시했다.

미국 사법부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정부는 "법안에 피임약을 포함시키는 것이 대중의 건강과 성적 평등을 증진하는 데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하비로비 소유주인 그린(Green) 씨 가족들은 "성교 후 복용하는 '사후피임약'을 비롯한 기타 피임약에 대한 보험료 지급은 기독교적인 신념에 위배된다"고 주장해 왔다. 그린 씨는 "우리는 오바마케어의 요구 조건을 따르기 위해 우리가 가진 신앙적 가치를 포기할 수 없다"고 단호히 밝혔다.

이어 "자격이 있는 모든 종업원들

에게 건강보험료를 계속 제공할 것이지만, 피임약을 포함해 낙태를 위한 금액을 지불하는 것은 회사의 경영방침이 아니"라고 덧붙였다.

하비로비는 웹사이트에 "우리 사업의 기초는 성경적 원칙들에 맞는 규범으로, 주님을 높이고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밝혀 놓았다. 이 회사는 이 규범에 따라 주일에 상점 문을 닫고, 종업원들이 안식의 날을 누릴 수 있게 하며, 매년 크리스마스 및 독립기념일에 그들의 신앙을 선언하는 전면광고를 많은 신문들에 실고 있다.

하비로비는 주일에 상점을 닫아 직원들이 안식할 수 있도록 하며 크리스마스 및 독립기념일마다 회사의 신앙을 공개하는 전면광고를 신문에 실는다. 특정 교파와 관련되어 있지 않지만, 여러 목회자들을 돕고 성서유물 박물관을 후원하고 있기도 하다.

강해진 기자

[칼럼] 편지

요즈음은 인터넷 시대라 메일이나 문자로 대신하지만, 과거에는 집배원의 빨간 자전거를 기다리던 시절이 있었다. 그 이유는 편지는 감동을 주기 때문이다. 요즈음도 텔레비전에서 어머니의 손편지나 영상편지를 받고서 눈시울을 적시는 모습

을 많이 보았다. 유대인 어머니들은 결혼을 앞둔 딸에게 다음과 같은 편지를 보낸다 고 한다. "딸아! 네가 만일 남편을 왕으로 섬긴다면 너는 분명 여왕이 될 것이다. 그러나 만일 남편을 돈이나 벌여오는 하인으로 여긴다면 너도

하녀가 될 뿐이다. 또 네가 지나친 자존심과 고집으로 남편을 무시하면 그는 폭력으로 너를 다스릴 것이요, 혹 남편의 친구나 가족이 방문해도 네가 밝은 표정으로 정성껏 대접하면 남편이 너를 소중한 보석으로 여길 것이다"라는 내용의 글이다.

진실로 부모가 자녀로 하여금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가라는 한 단편을 보여주는 글이기도 하다. 성경에도 보면 우리들에게 편지를 쓰신 분이 계신다. 그분은 바로 사도 바울이다. 바울은 자신이 전도여행 때 세운 교회들에게 사랑을 가지고 쓴 편지

가 있는데, 그 내용은 바로 예수님께 서 우리 죄를 대속하셔서 그 구속함으로 "테렐레스타이"(다 지불하심) 하셔서 우리는 의인이 되었다는 감동적인 글이다. 그 감동이 매 순간 감사로 넘쳐나기를 바란다.

목회자사모신문 발행인 설동욱 목사

천천히 다 둘러보시고 오세요~
당신의 마지막 카드
13년 경력의 자동차 판매 전문가, 찰리 정

찰리 정 (FLEET MANAGER) | 213-276-8959 | email: usajyk@gmail.com

새빛한의원
Saevit Acupuncture clinic
323-735-6365 올림픽+하버드
3130 W. Olympic Blvd, Suite 380 Los Angeles, CA 90006

한방내과, 한방성형 & 통증클리닉
늘 환자의 고통을 함께 나누며 환자의 몸이 지니고 있는 "자연치유력"을 살려내는 새빛이 되었습니다.

수술없는 한방 성형
치진 턱선을 올려 젊음 유지
아름다운 여인이 되어보세요.

한방감기 특별처방!!
(5일분-\$35)

약력 북경중의약대학졸업 전 한의과대학 교수역임(삼라한의대) 교통사고 · 각종보험 · 여행자보험

design@christianherald.com <design@christianherald.com>;

THE REFORMED UNIVERSITY

미주개혁대학교 1990년에 고 박요한 박사가 설립한 미주개혁대학교는 철저한 신학 학문 바탕으로 영성훈련, 교회헌법, 예식, 목회실습 등 전통성과 전문성을 교육하고 양성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윌리엄캐리대학 코리안 Ph.D 과정 >>

(William Carey International University Korean Ph.D)

윌리엄캐리대학의 박사학위과정 (Ph.D in International Development)을 미주개혁대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습니다.

전공분야: 1. 선교 2. 기독교 교육 3. 글로벌 리더십

특징: 윌리엄캐리대학의 졸업장을 받는다
한국 지도교수에게 한국어로 공부하게 된다
자신이 원하는 세부전공을 선택할 수 있다
멘토링과 온라인 수업이 가능하다
윌리엄캐리대학의 도서관과 온라인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다

복수학위 수여 (Ph.D) >>

윌리엄캐리대학의 박사학위를 받으신 후에 미주개혁대학교의 D. Min, D. Miss, Ph.D in Theology(24-30학점)를 추가로 이수할 경우 두개의 박사학위를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미주개혁대학교는 다양한 학사, 석사, 박사학위 및 편리한 통신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013 가을학기 신입생 모집 (학사, 석사, 박사) >>

Undergraduate 대학부
Bachelor of Arts in Theological Studies

Graduate 대학원
Master of Arts in Theological Studies
Master of Divinity

Graduate 박사원
Doctor of Ministry
Doctor of Philosophy in Theology

세부전공:
신학 Theology, 기독교 교육학 Christian Education, 유아교육학 Early Childhood Education, 목회상담학 Pastoral Counseling, 심리학 Psychology, 선교학 Missiology, 세계문화학 Intercultural Studies, 문예창작학 Classical Literature

2013 여름학기 속성클래스 Intensive Program으로 등록 >>

1주일 집중 교육함으로 한 학기를 수료
일시: 2013년 7월 22일(월) - 26일(금)
장소: 미주개혁대학교 (4009 Wilshire Blvd. #100, LA, CA 90010)
수업시간: 오전 10시 - 오후 6시

SEVIS I-20 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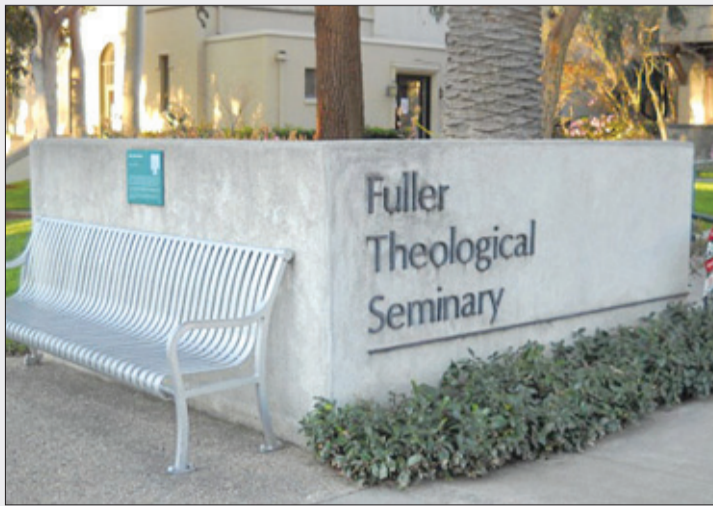
School Address: 4009 Wilshire Blvd. #100, LA, CA 90010
Mailing Address: 3010 Wilshire Blvd. #228, LA, CA 90010
Office **213-736-6500** | Fax 213-736-6504
Website: www.reformeduniversity.org | e-mail: admissions@reformeduniversity.org

풀러신학교에서 동성애 동아리 공식 인정해 충격

미국의 대표적 초교파 복음주의 신학교이면서 한국인 학생들도 다수 재학 중인 풀러신학교에서 동성애 동아리를 승인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이 학교에 다니는 동성애자인 닉 팔라시오스(29) 씨는 동성애 동아리인 원테이블(One Table)이라는 단체를 풀러신학교에서 이끌고 있다. 이 동아리에는 현재 약 30여 명이 참여하고 있다.

팔라시오스 씨는 “교회 공동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풀러와 원테이블이 좋은 모델이 될 것이다”라고 전했다.

풀러신학교의 이런 결정이 알려진 후, 논란이 일자 총장 마크 래버튼 박사는 “이 결정으로 큰 비판을 받는 것을 이해한다”면서 “풀러신학교는 모든 학생, 교수, 직원들이 혼전, 혼외, 동성애적 성행위가 성경 말씀과 일치되지 않는다고 보는



풀러신학교 입구 전경

공동체의 기준을 존중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즉, 이 결정이 풀러신학교가 고수하고 있는 성적 순결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원테이블에 대해서는 “이 단체는 매우 중요하면서도 개인적인 이슈인 성적 지향성의 문제와 관련해 토론할 수 있는 안전한 장소가 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래버튼 박

사는 “원테이블은 우리 학교의 정책을 변화시키는 단체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또 래버튼 박사는 “오늘날 우리가 처한 중요한 많은 이슈들이 성경의 가르침과 교회의 증거 간의 관련성 속에서 논의되어야 한다”고 언급한 뒤 “복음주의자들과 교회들은 동성애에 대한 질문을 성도들로부터 받고 있다. 우리의 목표는 학생들이 이런 문제를 대할 때 사랑을 갖고 성경적이며 신앙적인 방법으로 묵화하도록 준비시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주의자들은 미국의 대표적 복음주의 신학교가 가장 논쟁적 주제인 동성애 문제와 관련된 동아리를 공식 인정한 것에 충격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한편, 풀러신학교와 그리 멀지 않

은 곳에 위치한 기독교 명문 사학 바이올라대학에서도 2012년 5월경 퀴어 언더그라운드(Queer Underground)라는 동성애 동아리가 결성된다고 해 논란이 된 바 있다. 그러나 당시에는 아직 보수적인 학내 분위기로 인해 이들이 공개적으로 활동하거나 회원 명단을 발표하지 못했다. 이번에 풀러신학교가 동성애 동아리를 공식 승인한 후, 동성애 지지자들은 바이올라에서 다시 한번 동아리 승인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 사건으로 인해 풀러신학교는 미국 복음주의 신학교 가운데 최초로 동성애 동아리를 받아들인 학교가 됐다. 중부에서는 역시 기독교 명문 사학으로 꼽히는 웨튼대학교가 지난 2월 동성애 지지 학생 동아리를 인정한 바 있다. 김준형 기자

울타리선교회 14주년 “하나님께 구하기보다 감사가 먼저”



울타리선교회가 창립 14주년 감사예배를 21일 미주평안교회에서 성대히 드렸다.

향후 구제사역 위한 10불 회원 모집중

울타리선교회(대표 나주옥 목사)가 창립 14주년을 맞아 찬양으로 준비한 감사예배를 21일 오후 5시에 미주평안교회(송정명 목사)에서 드렸다.

이 자리에서 나주옥 목사는 “그동안 지역교회와 사업체 등의 후원자님들의 기도와 도움으로 울타리선교회는 잘 견뎌왔다. 감당하기 힘든 일도 많았지만 손잡아 주신 분들과 어깨가 되어주시는 분들, 그리고 무릎으로 기도해주어 기둥이 되어주시는 분들이 있었기에 견딜 수 있었다. 시험 가

운데서도 견딜 수 있는 힘도 주신다는 그 진리의 말씀을 경험하면서 온 몸과 마음으로 행복을 느낀다”며 “선교회는 무엇을 위해 구하기보다 감사를 했다. 먼저는 하나님 편에서 있어야 된다는 말씀에 바르시기를 원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신 것 같다. 활짝 웃는 모습으로 14주년 감사 음악회를 펼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감사예배에서는 사회 나주옥 목사,

대표기도 이강원 목사(아가페홈미션), 설교 김국진 목사(울타리선교회 고문), 축사 이운영 목사(남가주목사회 회장), 구역보고 김성일 장로, 헌금기도 최영일 장로(울타리선교회 협동장로), 축도 전예인 목사(LA노숙자협회 회장) 순으로 진행됐다.

또한 미주여성코랄, 소노로스 싱어스, 나이저리아교회, 미셸 우즈, 정창균 가스펠 밴드 등이 참여해 때로는 중후하고 흥을 돋우는 찬양으로 하나

님께 영광을 돌렸다. 또 중앙일보 산하 비영리 봉사단체인 해피빌리지(김장호 국장)에 의해 흥기 목사와 김승업 목사가 자원봉사상을 수상했다.

현재 울타리선교회는 앞으로의 사역을 위해 ‘10불 회원자’ 모집을 진행 중에 있다. 선교회 관계자는 “작은 돌이 모여 큰 성을 쌓을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의 관심과 도움이 크다”고 밝혔다.

이 선교회는 교회 사역 외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LA 다운타운 6가와 타운이 만나는 길거리에서 아침 7시 30분부터 크리스피 크림 도넛을 평균 250여명에게 나눠주고, 토

요일에는 사발면과 도넛을 나눠주는 구제 사역을 하며 주 3일은 드림센터, 에코 하우스웨어, 자연나라, 농업 목사가 자원봉사상을 수상했다.

또한 배움터로 빈곤·저소득층 가정의 자녀들에게 악기와 수강료를 무료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인 Love in Music Program을 진행하고 있으며, 불량청소년방지프로그램의 일환으로 Foster Family Home을 1999년부터 2009년까지 10년간 운영하며 20명의 아이들을 돌보기도 했다.

토마스 맹 기자

최첨단 3D 전신 스캔 검사

유전자 생약치료 2000개의 유전자를 분석하여 질병위험과 전반적인 건강상태 상담. BAM(bio active molecule; 생리활성물질)으로 치료를 합니다.

특별무술수기법에 의한 완고한 통증(요통, 오십견, 무릎관절통, 좌골신경통 등)의 치료도 하고 있습니다.

다나병원 다나병원은 Well-Being과 Aging Care를 목표로 통합의학을 지향합니다. 테바 선교후원회 부설 · 다나병원의 수익금은 전액 선교 후원금으로 사용됩니다. 621 S.Virgil Ave, #252, Los Angeles, CA 90005/ T.213.487.0691

보험료를 대폭 낮추었습니다!

가장 싼 자동차 보험 알선

“친절하게 웃음으로 상담해 드립니다. 부담없이 연락주세요.”

음주운전자들을 위한 특별 자동차 보험 | 각종 사업체, 화재보험 및 모든 보험문의 환영

굿모닝 보험 213.761.9990 24hr 한국어 서비스 KEVIN YOO

3550 Wilshire Blvd. #510 Los Angeles, CA 90010

LOS ANGELES ORT COLLEGE
NON-PROFIT ORGANIZATION
ACCREDITED BY ACCET
www.LAORT.edu

◆ **한국인 상담**

그레이스 (Grace)
직통: 213.703.6863
Office: 323.966.5444

고소득 직업을 원하십니까? 우리가 도와 드리겠습니다.

시민권자, 영주권자, 저소득층 정부전액 보조금 지급(유자격자) - ESL Program Only -

상담필수 8:30AM~7:00PM

- 시민권 신청
- 저소득층 메디칼 신청
- FREE Food Stamp
- HEAP(Utility Ball Payment)
- Social Service
- WIA, Childcare, Transportation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드립니다.

• 방문비자(B1, B2)를 학생비자 F-1으로 변경 가능

유학생은 ORT학교 졸업 후 워크퍼밋과 소셜NO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GED반 개설

- 메디칼 오피스 매니지먼트 학사취득 ... Medical Office management (AA Degree)
- 건축설계 ... Computer Aided Design & Drafting
- 의사보조 ... Medical Assistant
- 약사보조 ... Pharmacy Technician
- 정부 전액보조금지급(유자격자) 학자금 보조 및 용자
- 취업추천 및 직업소개(전문 직업, 높은 취업률 보장)
- 무료 버스표, ORT 학교 장학제도 보유

- ESL ... English as a 2nd Language (ESL) 1~6단계, 회화반
- 비즈니스 매니지먼트 학사취득 ... Business Management (AA Degree)
- 아카운팅 AAS 학사취득 ... Accounting (AA Degree)
- 그래픽, 포토샵 ... Computer Graphic & Desktop Publishing (Adobe Illustrator)

- 편리한 수업시간 대 : 아침반, 저녁반
- 유학생을 위한 1-20 발급 (이민국 SEVIS 인정 대학, 소셜 넘버가능)
- 교수진 : 전원 남녀 미국인교수

Los Angeles : 6435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48 (Wilshire+Lajolla)
Van Nuys : 14519 W. Sylvan Street, Van Nuys, CA 91411 Tel. 818.382.6000

New York : Forest Hills
Chicago : Skokie

美 수정헌법 1조 '정교분리와 종교자유' 또다시 충돌

공공장소 십자가 전시 놓고 '미국판 종자연' ACLU 소송

미국 에반스빌에서 십자가 전시회가 소송을 당하자, 지역 사업체들이 자신들의 간판에 십자가를 전시하며 대항하고 있다.

도심을 가로지르는 강변에 십자가 조형물을 세우려 한다는 이유로 10개 교회가 무더기로 소송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인디애나주 에반스빌의 교회들은 심혈을 기울여 창작한 십자가 조형물들을 강변에 전시하기로 하고 시청의 허가를 받았다.

그런데 문제는 반기독교적 단체들이 이 전시가 수정헌법 1조에 위반된다고 반대하고 나선 것이다.

그들의 반발은 소송으로 번졌고, 아니나 다를까 미국시민자유연맹(ACLU, 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이 변론을 맡았다. 이 단체는 최근 10여년 간 공립학교 기도 및 십자가 폐지, 공공장소 십계명 철거 등 각종 반기독교 소송을 앞장서서 추진해 왔다.

이들은 공공장소에 종교적 조형물인 십자가를 게시하는 것은 수정헌법 1조에 명시된 정교분리를 위배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교회들이 소송을 당하자, 역시 이런 소송에서 늘 변호를 맡아온 자유수호연맹(ADF, Alliance Defending Freedom)이 나섰다. ADF측은 "수정헌법 1조는 정교분리를 명시하고 있지만, 동시에 자신의 신념을 표현할 수 있는 자유도 명시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 "정부가 신앙인보다 비신앙



에반스빌에서 십자가 전시회가 소송을 당하자 지역 사업체들이 자신들의 간판에 십자가를 전시하며 대항하고 있다.

인을 우대해선 안 된다"고 반박했다. ADF는 "그들은 수정헌법 1조의 궁극적 목표인 종교 자유를 곡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웨스트사이드크리스천교회 등은 이 조형물을 오는 8월 중 2주에 걸쳐 전시하고, 지역사회 기금 모금을 도우

려 했다. 그리고 이 전시회의 이름을 'Cross the River'로 지었다. 그러나 시청으로부터 허가가 난 바로 다음 날 ACLU가 소장을 접수시켰다. 그들은 소장에서 "정부가 특정 종교를 지지하는 것은 수정헌법 1조 위반이다. 교회가 자신들의 소유지가 아닌 공공장소에 종교적 조형물을 게시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 소송이 알려지자 지역의 기독교인 사업주들은 자신들이 운영하는 업체의 간판에 십자가를 전시하며 ACLU를 간접 비판하고 있다.

ACLU가 강변에 공공장소이기 때문에 십자가 게시를 금지하려 한다면, 자신들의 사업체는 사유지이므로 십자가를 전시해도 되는 것 아니냐며 맞대응하고 있는 것이다.

» 1면으로부터 기사 받음

둘째로 지속성 있는 비전과 우선순위를 사역자들에게 제시해야 한다. 하나의 비전을 선포했다면 그것에 집중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 그전에 또 다른 비전, 또 다른 계획만 늘어 놓아서는 안된다. 혼란만 더할 뿐이다.

셋째는 개성의 조화다. 레이너 박사는 이를 개성의 화학(personality chemistry)이라고 불렀다. 물질을 구성하는 화학적 성분이 안정성을 갖고 서로 맞아야 하듯이, 부목회자들에게 사역을 맡길에 있어서도 그들의 개성을 고려해서 잘 맞추어 주어야 한다. 물론 자연스럽게 되지 않으므로 목회자 간의 이해와 섬김도 필요할 것이다.

넷째는 사역을 맡길 때 그에 걸맞는 권한도 함께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많은 한인교회 부목사들이 "권한은 주지 않으면서 책임만 묻는다"는 불만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이 넷째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다섯째는 사역에 있어서 언행일치다. 담임목회자로서 무엇을 하고 했으면 자신이 말한 대로 자기부터 해내야 한다. 실행하지 않고 말만 늘어 놓으면 안된다.

여섯째는 잘 들으란 조언이다. 목회자 회의나 전직원 회의에서의 모든 대화는 듣고 말하기로 이뤄진다. 한 쪽만 말해서는 안된다. 부목회자나 직원들이 말할 때 잘 듣는 것도 담임목사의 미덕이다.

일곱째는 충성심이다. 부목회자나 직원들은 담임목회자에게 맹목적인 신앙을 요구하지 않는다. 다만, 담임목회자가 교회에 충성하며 하나님을 든든한 후원자로 모시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 한다.

여덟째는 영적 리더십이다. 성도들은 목회자가 영적 리더십을 갖고 성도들을 이끌길 기대한다. 마찬가지로 부목회자들도 담임목회자에게 그런 점을 기대한다. 성도들에겐 영적이면서 목회자끼리 모인 회의 때에는 지극히 육적인 담임목회자를 보면 자연 실망하게 된다.

아홉째는 "알아서 해라"는 안된다. 부목회자들이 알아서 자동적으로 움직일 것이라 기대하지 말고 강력하게 이끌어 주어야 한다. "알아서 해"라고 해 놓고 나중에 따지는 담임목회자가 은근 많다는 것은 부목회자 세계에서는 정설에 가깝다.

마지막은 연합이다. 목회자들 간의 연합, 직원들 간의 연합을 도모하는 일에 담임목회자는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리고 스스로가 그 모범을 보여 주어야 한다.

김준형 기자

실만한물가교회 '한+히스패닉'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돼"



실만한물가교회 성도들이 기념포즈를 취하고 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 같고 혈문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시편 133)

한인교회와 히스패닉교회 간에 아름다운 교회 통합이 이뤄졌다.

LA지역 로레나 스트리트 선상에 위치한 실만한물가교회가 창립 11주년을 맞아 히스패닉 교회인 생명의교회(Camino De Vida)와 한 가족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렸

였다. 통합된 교회 이름은 '실만한물가교회'.

두 교회가 통합하게 된 계기는 한인교회와 재정적 힘듦에 처한 히스패닉 교회의 안타까움을 보게 되면서 통합을 제안해 성사됐다.

통합 이후 지난 몇 달 동안 이 교회는 3개 국어(한국어, 영어, 스페인어)로 찬양예배와 토요 새벽기도회를 진행했다. 또 야외예배와 친목을 통해 단체 줄넘기, 다양한 게임을 즐기기도 하고, 야드 세일을 통해 이웃 주민에게 복음을 전하고 노방전도를 해왔다.

전건국 담임 목사는 "우리가 이

히스패닉 교회를 불쌍히 여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실만한물가교회를 불쌍히 여기셔서 귀한 동역자이자 믿음의 식구들을 보내주셨다. 너무 감사하다"고 전했다.

지난 14일 이 교회에서는 창립 11주년 감사예배 및 히스패닉 성도 입교식을 거행했다.

전건국 담임 목사의 사회로 진행된 예배에서는 히스패닉 담당 목회자인 훌리아 알레드리아 목사가 기도를, 현재 파라과이 선교사이자 실만한물가교회 개척 담임목사였던 이희수 목사가 설교를 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본문으로

말씀을 전한 이희수 선교사는 "이 아름다운 교회 통합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두 교회가 연합되었다는 것은 한 가족이 되었다는 의미로, 식사를 함께 해야 한다. 기회가 닿는 대로 식사를 함께 하길 바라고, 정말 먹어야 하는 것은 예수님의 삶과 피이다.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을 이루길 바란다"고 했다.

그는 이어 "가족은 한 집에서 사는 것이기에 이 교회가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되기를 바란다. 여태껏 두 교회가 문화도 다르고 살아온 역사도 다르지만 믿음 안에서 하나다.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 하나되길 원한다. 오직 예수님 안에 영생의 길이 있기에 그분과 동행하고 삶을 사는 실만한물가 공동체가 되길 축원한다"고 덧붙여 말했다.

이날 히스패닉 성도들은 "실만한물가교회의 한가족이 되어 순종과 협력하는 마음으로 주님과 성도들을 섬기기로 서약합니까"라는 질문에 "예"라고 화답했다. 이에 한인회 중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성장하도록 이들을 교회의 식구로 받아들이고 사랑으로 섬기기로 서약합니까"라는 질문에 "예"로 답함으로 타민족간 아름다운 하나됨을 이루는 일례를 남겼다.

토마스 맹 기자

초스피드 다이어트 **미용침** • 열극촉수 (안면지방제거)

초강력 정력제 + 원형탈모 대머리

치질 항문 문제로 하혈이나 통증으로 수술해야 하는 증상

매에는 숙변약 몸 전체 부종 빠지는 약

\$50 한달분

자궁물혹이나 자궁근종 하혈이나 통증으로 수술해야 되는 분

영선한의원 Young Sun Acupuncture Clinic & Herb

Tel: 213.380.7800/380.6868

LA MEDICAL CENTER 3663 W. 6th St., #308, Los Angeles, CA 90020 (6가위 마드윈) 영업시간: 월-금, 10시 ~ 5시 / 토 10시 ~ 2시

헤어컷 특강

미용을 배워 선교하는데 사용하실 분들을 위해 특강을 엽니다.

- 대상 : 전도와 선교를 위해 사용하실 분 (현재 프로 미용인도 OK)
- 회비 : 월 \$10
- 강사경력 : 전 국가대표 선수권자
- 문의 : 213.392.2323

장재효 목사 초청 영성집회

집회일정

- 6월 30일 (주일) 남가주 리더 교회 행 19:1-20 예배소 선교의 성령역사
- 7월 7일 (주일) 예향선교교회 1부 행 9:32-42 전도를 위한 표적들
2부 왕하 4:1-7 해결위한 말씀 실천의 믿음
- 7월 10일 (수) 미주복음방송, 기독교일보 인터뷰
- 7월 14일 (주일) 성재복음선교교회 고전 2:6-16 세상지혜와 하나님 지혜의 차이
- 7월 19-21일 (금-주일) 남가주 리더 교회
19일 (금) 행 10:38-48 성령받게 하심은
20일 (토) 행 9:32-42 사역위한 은사와 영력
21일 (주일) 갈 5:16-26 성령께 쓰임받으면
- 7월 24일 (수) 엠마오 장로교회 행 16:6-15 믿어지는 믿음을
- 7월 26일 (금) 작은자교회 눅 10:17-24 예수께서 기뻐하신 성령선교
- 7월 28일 (주일 12시 30분) 건강한 교회 잠언 1:20-33 자주 책임을 받으면서도
- 8월 3일 (토 오후 7시) 동문교회 몬 1:1~22 교회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섭리
- 8월 4일 (주일 오전 11시) 동문교회 빌 2:19~30 구령성과 위한 사역 공동체
(주일 오후 2시 재직세미나) 행 6:1~7 부흥 위한 교회 조직과 역할 감당
동문교회 : 1901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57 213 483 6625
- 8월 11일 (주일 11시) 주님의빛교회 에스라 1:1-11 영적 상태와 회복의 역사
- 8월 18일 (주일 11시) 생명나무교회 눅 8:1-3 은혜보답의 섬김과 보람

약력소개

- 총회신학대학원 졸업
- Faith Theological Seminary 목회학 박사과정 이수
- Westminster Theological Seminary 선교신학연구 과정 이수
- Trinity Theological Seminary 신학박사과정 이수
- Faith Evangelical Seminary 명예박사
- 국제성은복음선교회 총재
- 성령세계복음화협의회 총재 역임
-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장 역임
- 전국기도원 총 연합회 총재
- 성은동산(기도원, 경로원, 수양관) 원장
- 바른목회연구원 원장



서울 성은교회 목사 장재효

주 관 : 국제성은복음선교회 (International Holy Grace Gospel Mission)

후 원 : 남가주 리더 교회, 예향선교교회, 미주복음방송, 기독교일보, 성재복음 선교교회, 동문교회, 엠마오 장로교회, 작은자교회, 건강한교회, 주님의빛 교회, 생명나무교회

어리석은 부자의 유혼

마태복음 19:16-22



서울 성은교회 목사 장재효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이적기사를 많이 베푸시고 절망을 소망으로,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어 가시는 과정에서 율법에 정통한 신앙생활을 했으면서도 자기 마음 속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없었던 한 청년이 예수님께 16절과 같이 묻습니다.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구원을 얻는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에게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고, 체험을 주시며 감동하게 하시고 믿어질 때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천국에 가는 것도 선한 일을 행하여야 들어가는 것처럼 생각을 잘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영생이 확실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영생에 자기도 꼭 참여하고 싶다는 의욕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청년처럼 교회 다니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천국이 있다고 자랑하면서도 자기는 그곳에 갈 자격에 신경 쓰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참으로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율법은 아무리 잘 지켜도 죄를 짓지 않게는 될 수 있으나 천국에 들어갈 자격은 얻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태어날 때 원죄를 전가받아 죄인의 후손으로 태어났고 율법을 지키기 이전까지 지은 죄는 율법을 아무리 잘 지켜도 죄가 사라지거나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행함으로는 하늘나라 갈 자격을 얻을 수 없습니다.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신 은혜를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에게 성령으로 깨닫게 해 주실 때 믿어질 때까지 성령이 뜨겁게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집중적인 역사를 해주십니다. 그 사람이 성령의 가르침을 따라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 벌 받아 죽어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되고, 믿어지게 되어서 죄송스러운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회개함으로 죄를 용서받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을 파송시켜 주시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자녀이기 때문에 성령에 이끌려 순종해 살기만 하면 하늘나라는 반드시 그 성령이 데리고 들어가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영적인 소망을 가꾸어주기 위하여 자주 모여야 하고 계속해서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 믿음을 비교, 점검하면서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고, 육적으로 세상에 빠져버렸으면 그곳을 해체하고 다시금 말씀에 붙들리고 성령에 이끌리며 하늘소망을 바라보며 새출발하는 일을 계속적으로 감당해야 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넘어지면 일으켜 세워주어야 하며, 주저앉으면 일으켜가며 하늘나라로 보내야 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목자의 책임인 것입니다.

16절에서 청년이 영생을 얻기 위한 방법을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서는 영생을 생명으로 바꾸어 말씀하시며 사람 사이에서 지켜야 할 계명을 일러주시며 지키라 하십니다. 그러자 청년은 이 모든 것을 다 지켰다고 장담하며 말합니다. 20절의 내용은 자신이 계명을 다 지켰음에도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는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하는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그 청년에게 “내가 진실로 하늘나라에 가고자 한다면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

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하십니다.

유대인이며 율법주의자인 이 청년은 하늘나라에 가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한데 확신이 없었던 이유가 많은 재산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임을 간파한 예수님께서 그것을 지적하시며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청년을 두고 우리 자신과 비교하며 살펴야 할 것입니다. 교회도 열심히 다니며 예배도 빠짐없이 참석하지만 진실로 영생을 바라보고 하늘나라에 가기 위한 믿음생활을 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 그렇지 못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재리(財利)의 유혹이 우리의 마음을 잠식(蠶食)해 버렸다면, 그것은 진짜 믿는 믿음은 없고 그저 믿는 척하는 껍데기뿐인 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공적 예배에도 참석하지 않고 돈벌이 하느라 바쁘습니다. 내세소망의 확신은 정말 중요함입니다. 천국은 정말 있습니다. 하나님 계신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돈을 좋아했던 모 권사님 이야기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느 교회에서 권사로 세움 받았던 이 할머니에겐 자녀가 많았습니다. 이분은 열심히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신유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의사가 죽는다고 했던 사람도 이분이 붙잡고 기도하면 치유받고 살아나곤 했습니다. 이 소문은 삼시간에 퍼져 사방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찾아왔고 기도만 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다보니 돈이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사양하듯 받다가 나중에는 돈을 얼마나 가져왔는지 물어본 후 기도해 주는 상황까지 갔습니다. 그때는 이미 60억 정도 되는 돈을 모은 상황이어서 자녀들에게 사업자금으로 주고 건물도 사주고 땅도 매입해서 재산 늘리기 바빴습니다. 그러면서도 계속 기도해주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그분을 떠나셨고 더 이상 기도해도 병이 치유되지 않았습다.

그리고는 이 권사님은 병이 나서 앓다 죽게 됩니다. 이분은 당연히 당신이 죽으면 천국에 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한 교회의 권사이며, 하나님의 도구로 병자들을 고치며 살아온 자신의 인생을 보면 당연히 천국에 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에게 거의 죽음이 임박했을 때 마귀와 같은 자들이 와서 자신을 끌고 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사적으로 끌려가지 않으려고 발버둥치던 중 한줄기 빛이 보이면서 천사 둘이 자기 앞에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니 천국 문이 닫혀있고 천사들은 자기를 데리러 온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많은 병자들을 고치면서 복음이 확증되게 쓰시기를 원하셨는데 신유의 은사를 통해 자신의 이익만을 쟁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버리셨고 결국 천국에 갈 자격을 잃은 것이라고 말하더라입니다. 그래서 이 권사님은 지옥에는 절대로 가고 싶지 않으니 한 번만 기회를 주시면 돌아가서 진정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남은 생을 살고 죽어 하나님 품에 안기기를 소원한다면서 애걸복걸 때 달렸답니다. 그러다 다시 살아나게 되어 이 권사님은 깨끗하게 목욕을 하고는 자녀손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말을 합니다. “내가 하늘나라 가다가 문이 닫혀 못들어가고 마귀들이 나를 지옥의 어두운 곳으로 끌어들이기에 지옥에 갈 수 없으니 나를 다시 세상으로 보내달라고 몸부림치며 부르짖고 애원해서 다시금 세상으로 돌아오게 되었으니 너희들은 돌아가 내가 나누어준 재산을 빨리 정리하여 내게로 다시 가져 오거라”고 했습니다. 자식들은 그의 어머니의 태도가 너무나 진지하여 모두 정리해서 가져왔습니다. 그분은 이것으로 하나님의 일에 모두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7:21-23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하신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일에도 속셈을 해가면서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며, 계산적입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버리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희생시켜서 죄값을 값없이 대속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옥에 갈 사람을 구속하여 하늘나라까지 값없이 주려고 했었는데 결국 육신의 세상 허욕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인생을 속셈하며 어리석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 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고 누가복음 6:38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우리는 나누고 베푸는 것입니다. 그것도 내 이름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예수님 이름으로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 너무나 어여쁘게 여기시고 기대를 거심으로 누가복음 6:38과 같이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안겨 주신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

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절대 속셈하여 주지 말라고 하십니다.

본문 속의 청년은 계명을 모두 지키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한치의 주저함도 없이 그 모든 계명을 다 지켰다고 말할 정도의 율법주의자였습니다. 20절에 그 청년은 자신이 영생을 얻기 위해 계명을 다 지켰는데 무엇이 부족한 것인지를 묻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그를 깨물어 보시고 “내가 진실로 하늘나라에 꼭 들어가고 싶으면 가서 내가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기대하고 의지하고 있는 너의 재산을 정리해서 예수 이름으로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와서 나를 좇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네게 큰 상급이 있을 것이다”고 하십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하다가 천국에 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고 합니다. 성령을 충만히 받고 하늘소망의 기쁨과 생기가 넘치는 신나는 믿음생활로 성령이 충만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며 헌금도 아낌없이 하던 사람이 세월이 갈수록 믿음이 점점 더 무르익어 가야 하는데 반대로 세상으로 빠져들어 가서 재리(財利)의 유혹에 얽매어 벗어나지 못해서 그만 하나님이 버리시면 천국백성이 되지 못하고 실격자가 되어 버립니다. 그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간에 은혜 받았을 때 섬겼던 일은 영원히 상관없는 것이 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으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25절에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 심히 놀랐다고 하고 있는데 제자들 역시 예수님 덕분에 부자 될 기대와 욕심이 가득 차 있었다는 가장 진솔한 반응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제자들이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는 질문에 예수님께서서는 “사람으로는 할 수 없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고 답하십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에게 깨닫게 하시고 역사하실 때에 그가 온전한 믿음으로 하늘나라를 목격삼는 영적 신앙의 소망으로 순종하여 따르지만 하면 성령이 하늘나라까지 데려가 주시게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물질 기대로 인한 속셈은 참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 성과를 인한 속셈은 하나님의 복판을 그릇이 된다는 점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성은교회 장재효 목사 TV & RADIO & 신문설교

한국 선교 설교					
CBS TV	목요일 오후 2시	CTS TV	금요일 오전 6시		
크리스천투데이	7면 설교		동영상 설교 / 인터넷 설교		
경북기독신문	3면 설교	기도원연합신문	3면 설교		
해외 선교 설교					
COX TV 워싱턴DC	화요일 오후 6시 토요일 오전 7시	목요일 낮 12시 주일 오후 10시30분	CTS TV	수요일 토요일	서부 오후3시반 / 동부 오후6시반 서부 오후6시 / 동부 오후9시
AMI190 LA 미주 복음방송	매주 월요일 오후 5시				
AMI310 기쁜소리방송	화요일 오후 7시30분	금요일 오후 2시30분	미국 기독일보	5면 설교문	온라인 칼럼설교
AMI590 사카고 기독교방송	월요일 오전 11시20분~11시50분			오프라인 칼럼설교	인터넷신문 설교문

성은교회 당회장. 성은동산 원장. 애장증경 총회장. 바른목회연구원 원장.
국제신학대학원대학교 초대 총장. 국제성은복음선교회 총재. 선목회 회장.
You Tube로 지구촌 어디서든 “장재효 목사”를 검색하면 동영상 설교들을 선택, 시청 가능함
提供 국제성은복음선교회 TEL. (02) 420-3351-3 / HP. 011-222-5591

2013 미주기독교대학박람회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해외한인장로회 총회 직영신학원
(한국 장로회 통합측 목사고시, 안수가능)
1-20발행 및 각종 장학제도
15605 Carmen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Tel. 562-926-1023, 4691 Fax. 562-926-1025
www.pts.edu

FULLER THEOLOGICAL SEMINARY
플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
135 N.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Tel. 626-584-5574 http://korean.fuller.edu

국제개혁대학교 신학대학원
1-20발행, 각종 장학금 혜택
KAPC 교단 직영 신학교
125 S.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4
Tel. 213-381-0081 Fax. 213-381-0010
www.iruniv.org

복음대학교 EVANGELICAL UNIVERSITY
TPACS 정회원 인준
특전: Sevis I-20 발행/ 선교사 장학금 및 각종 장학제도 있음
학사과정: 성경학 학사 (B.A. in Biblical Studies)
석사과정: 목회학 석사 (Master of Divinity)
종교학 석사 (Master of Art in Religion)
2660 W.Woodland Dr., #200 Anaheim, CA 92801
Tel. 714-527-0691 (0692) Fax. 714-527-0693
www.evangelia.edu info@evangelia.edu

캘리포니아 센트럴대학교
This is the hand stretched out over all nations (Isaiah 14:26)
520 S. La Fayette Park Pl., Suit #103 Los Angeles, CA 90057
Tel. 213-381-7007 Fax. 818-435-2441
www.myccu.us

솔로몬대학교
땅끝까지 제자를 삼아 복음을 전하자 (마태복음 28:18-20)
총장: 백지영 박사 부총장: 브랜트 프라이스 박사
3921 Wilshire Blvd. #400 Los Angeles, CA 90010
Tel. 213-381-7755 Fax. 213-381-5055
http://solomonuniv.org/

AMERICAN BAPTIST SEMINARY OF THE WEST, BERKELEY, CA
L A Campus 목회학 박사과정
(매년 1, 6월 통역제공, GTU 와 ATS 정회원)
Dr. Hoi Chang Kim: (213) 268-9367
hoichangkim@hanmail.net
Dr. Hyo Shick Pai: drhyopai@gmail.com
ABSW President: Dr. Paul Martin www.absw.edu

미주대한신학대학
개혁주의에 기초한 성경해석과 성경에 대한 종합적 사고능력 배양,
교회 역사와 신학에 대한 구속사적 안목의 정립,
말씀을 실천하는 신실한 주의 종 양성,
세계 복음화를 위한 영적인 리더십의 준비.
1325 12th Ave., Los Angeles, CA, 90019
Tel. 323-731-9819

코헨대학교&신학대학원
With the world!
To the world!
17002 S.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el. 424-257-8176 / Fax. 424-257-8136
www.cohenuniversity.ac

캘리포니아 두란노 대학 신학대학원
목회학, 신학, 철학박사 California Tyrannus University
BPPE Ed, code 94874, Sc code 22426
CEO 학장 김호 박사
1008 S. Kingsley Dr. Los Angeles, CA 90006
Tel. 213-507-1933

미주충신대학교 CHONG SHIN UNIVERSITY IN USA
개혁주의 신학의 전통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
21세기 교회와 세계 선교 사명을 이끌어갈
사명자들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이사장 김연도 박사(D.P.M.) 총장 김근수 박사(Th.M., Ph.D.)
2975 Wilshire Blvd.#300, Los Angeles, CA 90010
Tel. 213-487-1010 e-mail: info@chongshinusa.edu
www.chongshinusa.edu

미주성결대학교
한국성결교회 100년,
미주성결교회 30년,
미래를 책임지는 미주성결대학교!
1818 S. Western Ave. #409 Los Angeles, CA 90006
Tel. 323-643-0301 Fax. 323-643-0302
www.aeui.org



미주 대한 신학대학교

부설 Sports Mission College 스포츠 미션 대학교

미주 대한신학대학교는 1948년에 설립된 한국의 대한신학대학교(현 인양대학교 신학대학원)와 대신교단의 인준을 받아 미주교역자 양성 기관으로 1995년 5월 30일에 캘리포니아 주정부와 연방정부에 등록하고 주정부교육국의 학사, 석사, 목회학 박사, 신학박사의 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신학대학교로 인가를 받았습니다.

본 대학에서는 신학 공부를 함과 동시에 학교에서 자체 발행하여 수여하는 스포츠 학과 **Teaching License**를 취득할 학생을 모집합니다.

모집학과

- 대학부 : 신학과 (4년) - 고졸 및 동등학력자
- 대학원 : 목회학 석사 (3년) - 대졸 및 동등학력자
- 선교학과 (4년) - 고졸 및 동등학력자
- 선교학 석사 (2년) - 대졸 및 동등학력자

Teaching License 수여 과목 : 골프, 테니스, 체조, 태권도, 승마



**차별화된 전문인 선교와 목회에 관심 있는 분은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문 의 : 310-598-0746 **최 제이콥 목사**(Sports Missionary Professor)
mr_jacob601@hotmail.com

주 소 : 3128 W. 8th Street., Los Angeles, CA 90005

믿음을 키우세요

믿음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저절로 자라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두면 기계적으로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관리하고 돌봐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열매없는 무화과나무에 대해서 말한대로 "...두루 파고 거름을 주"어야 합니다 (눅 13:8).

어떻게 해야 우리의 믿음이 자랍니다?
무얼 제거하고 무얼 넣어야 합니까?

염려의 돌맹이와 잡초를 뽑고, 숨겨진 죄와 불결한 생각 그리고 부끄러운 세속성을 파 내십시오. 그런 것들이 믿음이 자라는 것을 질식시킵니다.

그리고 용기있는 믿음의 고백, 거룩한 말씀 안의 지혜 오래 지속되는 충성, 그리고 주님께 대한 전적인 헌신의 비료를 넉넉하게 넣으십시오.

믿음을 잘 관리하여 주님의 충만한 데까지 계속해서 자라도록 하십시오.

조이헬로샵교회 박광철 목사

종교지도자 대상 정신건강 세미나

LA카운티정신건강국(LADMH)이 주최하는 '제5차 종교계 지도자와 함께 하는 정신건강국 세미나'가 오는 25일 열린다. 이날 미주평안교회에서 오전 10시부터 2시간 동안 이어지는 세미나에서는 주요 주제로 '감정조절법'에 대해 나눈다.

LADMH 안정영 코디네이터는 "한인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감정문제를 살펴보고, 이를 잘 관리하고 건강한 정신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이 같은 자리를 마련했다"면서 "스트레스 요인을 생활 속에서 줄여나가는 방법 등 정신건강과 관련해 실질적이면서도 유용한 정보를 얻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그러면서 "세미나 참가자뿐 아니라, 가족, 교인 등 주변 사람들에게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유익한 세미나가 될 것"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세미나에 참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약해야 하며 간단한 아침 식사도 준비된다.

▶문의: (213) 392-2577

영적 성숙으로 나아가는 삶



이 영 두 목사

신앙생활을 하면서 영적 성숙에 무관심한 자는 자신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잘못하고 있는지조차도 별 관심이 없다. 다만 하는 일이 잘 되고, 가정이 평탄하고, 바라는 소원이 이루어지면 그것으로 만족한다.

오늘날 한국교회나 이민교회 역시 교회는 양적으로 분방히 성장했다. 그러나 성장 뒷면에는 어두움의 그늘이 짙게 깔려있다.

그 이유는 영적 성숙에 관심을 소홀히 한 것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교회와 성도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데 불신자들로부터 지탄과 조롱과 걱정 대상이 된 지 오래다. 필자는 영적으로 미성숙한 성도를 어떻게 영적으로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가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연구한 학문과 훈련들을 독자와 함께 나누고자 한다.

육체의 일을 경계하라(갈5:19-21)

육체의 일이란 육체가 요구하는 것들이다. 바울은 이러한 것들을 좋아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하였다.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 것은 육체의 일을 쫓다가 지옥 불에 떨어져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따라서 각자의 선택은 하나님의 나라와 지옥 중 하나의 선택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것인가? 지옥을 유업으로 받을 것인가?

신앙생활은 언제나 기쁨과 감사가 넘쳐야 한다. 이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진리이신 예수님 안에서 경험하는 기쁨이다. 세상의 기쁨은 유한한 것이라 때가 지나면 식어지고 없어진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발견된 기쁨은 영원하다. 그러므로 육체의 일에서 떠나면 그 빈자리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기쁨과 감사가 가득할 것이다.

누구나 처음 예수님을 영접할 때 내 안에서 샘물처럼 솟아난 기쁨을 경험했을 터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시려고 2천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었을 것이다. 이 대속의 은혜 때문에 나는 오늘도 기뻐하고 기뻐한다. 그리고 감사한다.

육체의 일은 자신과 관련되어 있다. 음행, 분냄,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 짓기, 투기, 술취함, 방탕함 등은 자신과 다른 사람들 사이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다. 영적으로 미성숙하면 이러한 일들로 인해 반목과 충돌, 미움과 증오, 더 나아가 사회적 혼란과 타락에 머물게 된다. 그러나 영적으로 성숙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과 화평을 이루게 되고 육체의 일에 경계하게 된다.

오늘날 한국의 이혼율이 세계 1위를 자랑하고 있다. 불명예스러운 수치다. 심지어 음행의 문제는 심각하다. IT산업의 발달로 인해 인터넷을 통하여 전염병처럼 사회 곳곳으로 퍼져나가고 있다. 우리는 잊어선 안 된다. 육체의 일에 빠져있던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깊이 빠져있던 육체의 일을 잘 다스려 모든 사람과 화평 하는 일이 영적으로 성숙한 자의 삶이다. 보다 성숙한 자리에 이르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자기를 쳐서 말씀에 복종시키는 훈련이 따라야 한다.

글=이영두 목사

호크마신학대학교(hokmahcollege.com) 학장 역임
엘에이살롱장로교회 담임목사 역임
풀러신학교 목회학 박사
호크마신학대학교 영성신학박사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벧전4:10)

양로병원 노인 분들을 위한 찬송가 경연 대회

장애우 사랑교회에서 13년째 양로병원을 봉사 하던 중에 어려운 형편으로 가족들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계신 분들이 외로움도 달래고 치매 예방을 위해 찬송가를 암송함으로써 매일 소일거리가 생겨 정신적으로 좋은 결과가 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어르신들께 기쁨을 드리기를 위한 찬송 경연을 엮습니다. 모든 분들을 모시고자 하오니 기도, 봉사, 마음, 시간을 내셔서 따뜻한 사랑을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찬양대회 장소와 예배시간

중앙양로병원
Mid Wilshire Health Care Center
606 S. Bonnie Brae St. L.A., CA90057

그랜드 파크 양로병원
Grand Park Convalescent Hospital
2312 W. 8th St. Los Angeles, CA, 90057

- 1차 찬양대회: 2013년 6월15일 토요일 오전10시
- 2차 찬양대회: 2013년 12월21일 토요일 오전10시
- 부활절 예배: 2013년3월22일 금요일 오전9시30분
- 추수감사절예배: 2013년11월22일 금요일 오전9시30분
- 성탄절 예배: 2013년12월20일 금요일 오전9시30분

▶▶▶ 봉사자들을 구합니다 ▶▶▶

▶▶▶ 헌차 ▶▶▶ 남가주 교회협의회, 남가주 한인 목사회, 영애 사랑교회, 믿음의 은사를 전하는 선교교회, 데이비 백 병회사 그룹, 미동원 변호사 그룹, 가주 앙로호텔, Lahenco, Inc, 세일러 저문터, 남가주 총회도 도인회, Los Angeles Downtown Lions Club



장애우 사랑교회 T. 213-705-0404 F. 213-251-8930 P.O.Box 742017 LA., CA90004

프로 골프 선수 지망생 모집

- 현재 타수가 보기 플레이(90타)이하
 - 대상 : 7세~11세 (1~2명)
 - 코리아타운내 픽업가능
 - 문의 : 310.598.0746/mr.jacob601@hotmail.com
- 최 제이콥 목사(Sport Missionary Professor)**



Three-Level English Education <3단계 영어교육>

English (초급 영어)

▷Can you go to the post office?
우체국에 갈 수 있나요?
▷Yes, I can.
네, 갈 수 있습니다.
▷Can you speak English well?
당신은 영어를 잘 하나요?
▷No, I can't. I speak a little.
아니요, 잘 못합니다. 조금은 합니다.
▷Can she buy a soft drink at the fish market?
그 여자는 생선 가게에서 마실 것을 살 수 있나요?
▷No, she can't. She can buy only fish there.
아니요, 생선만 살 수 있습니다.
▷What can they buy at the market?
마켓에선 뭘 살 수 있나요?
▷They can buy anything they want.
그들은 원하는 것 무엇이나 살 수 있습니다.

English (중급 영어)

Some Pharisees had also been sent to John. They asked him, "Why are you baptizing people, if you are not the Messiah, or Elijah, or the prophet?" John told them, "I use water to baptize people. But here with you is someone you don't know. Even though I came first, I am not good enough to untie his sandals." (John 1: 24-27).

바리새파 사람들이 보낸 자들이 요한에게 "당신이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예언자도 아니라면 어째서 세례를 주시요?" 하고 물었다.

그래서 요한은 그들에게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너희 가운데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분이 계신다. 그분은 내 뒤에 오시는 분이시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 드릴 자격도 없다"고 대답했다.

<요한복음1:24-27>

English (고급 영어)

The great men in their books talk to us and give us the most precious wisdoms and thoughts, and they pour out their spirits and souls into our hearts. If we go back thirty years and compare our life styles of that period with those of today, we shall notice the great improvements made.

위대한 사람들은 그들의 책을 통해 우리에게 말해주고 우리에게 가장 고귀한 지혜와 사상을 주며 우리 마음속에 그들의 정신과 영혼을 쏟아 부어 준다.

만약 우리가 30년을 되돌아가서 그때의 생활 양식을 오늘날의 그것과 비교한다면 우리는 굉장한 발전을 이룩했음을 깨달으리라.

자료 제공
아메리칸침례대학 배효식 교수

보험/은퇴/학자금/재정설계
한솔종합보험(주)

완벽한 노후준비를

Hansol Financial & Insurance Marketing, Inc.

메디케어 세미나 & 무료 건강검진 서비스

장소 송명재 내과 플러튼 병원

Tel. (714) 626-0700 / 한솔 담당자 직통 (213) 479-0066
1401 S. Brookhurst Rd. #100, Fullerton, CA 92833

일시 7월 20일 (토) 오전 11:00 ~ 오후 3:00

무료 건강검진 서비스 내역

- 오전 11:00-오후 12:00 골다공증 검사 및 Vital Check, 혈당검사, 소변검사 (송명재 내과)
- 오전 11:00-오후 01:30 뇌졸중 검사 (대한 프로스펙트)
- 오후 01:30-오후 02:30 메디케어 세미나 및 개별상담 (한솔종합보험)
- 오후 02:00-오후 03:00 검사결과 무료 진단 및 상담 (송명재 박사님)

대상

1.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Medi-Cal) 혜택을 같이 받고 계신분 (Full Dual-Eligible Beneficiary)
2. 올해 1948년생으로서 만 65세가 되시는 분 (파트 A, B 신청 도와드립니다)
3. HMO 플랜에 가입되어있으나, 당뇨, 심장질환 및 신장투석 등으로 의료 혜택에 문제가 있으신 분
4. 처방약 보험이 있으나, 처방약 지불액이 부담되시는 분 (약 종류가 5가지 이상 이면 검토 대상)

금년 3월, 정부에서 발표된 "Cal MediConnect Program" (칼 메디컨넥션)은 현재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Medi-Cal) 혜택을 동시에 받고 계신분 (Full Dual-Eligible Beneficiary) 을 대상으로 2014년 1월 부터 시행되는 정부정책입니다. 금년 10월 부터 개별 통보되는 이 정책은 추진하는 방법이 다소 강제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이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한솔종합보험에서는 송명재 내과와 대한 프로스펙트 의사협회와 공동으로 다음과 같이 칼 메디컨넥션에 관련된 세미나와 무료 건강검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부디 많은 시니어분께서 오셔서 도움을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미리 **전화 예약**을 받습니다.

직원 모집

최근 이슈가 되고있는 메디케어 및 오바마케어 관련 보험인 모집합니다. 보험 전문인으로써 새로 시작하고 싶으신 분이나 다년간의 경험이 있는 전문가를 모시고 싶습니다. 스페니쉬 하시는 분은 대환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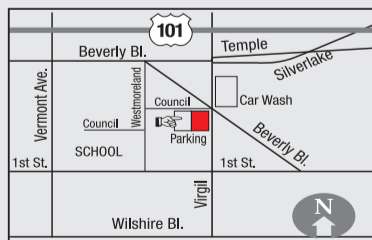
이력서를 e-mail로
(bartcho0928@gmail.com)
보내시면 연락드리겠습니다

연락처 : 한솔보험 시니어부
(213)487-4900
(213)479-0066

한솔종합보험 메디케어 세미나 및 개별상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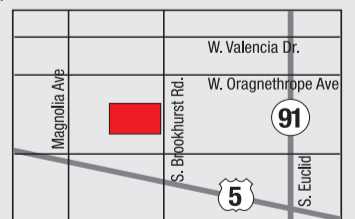
LA 지역

장 소: 한솔종합보험 시니어부서
연락처: 대표전화 (213) 487-4900
담당자 직통 (213) 479-0066
3598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04
일 시: 8월 3일 (토요일)
오전 9:30~오전 11:30



Fullerton 지역

장 소: 송명재 내과 플러튼 병원
연락처: 전화 (714) 626-0700
담당자 직통 (213) 479-0066
1401 S. Brookhurst Rd. #100,
Fullerton, CA 92833
일 시: 8월 3일 (토요일)
오후 01:30 ~ 오후 03:00



한솔종합보험 시니어부서 **연락처 대표전화 (213) 487-4900**
담당자 직통 (213) 479-0066
3598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04



존 파이퍼 “판결이 짐머만을 죄책에서 건질 순 없다”

“인종차별 바탕엔 스스로 높이려는 교만 깔려있다” 지적

존 파이퍼(John Piper) 목사가 짐머만 사건에 대해 “법원의 판결이 죄의 실제적인 책임에서 그(짐머만)를 건져낼 순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존 파이퍼 목사는 자신의 블로그인 ‘하나님을 향한 갈망(DesiringGod.org)’에 올린 인터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느 한 날 모든 이들의 심판자가 될 것이라는 성경과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높은 기준을 지닌 기독교인들은, 정의는 반드시 이뤄진다는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갖고 있다”면서 “짐머만이 스스로를 겸손하게 낮추어 죄를 회개하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여서 그의 죄가 십자가 위에 있게 되든지, 그가 이번 죄를 포함해 자신이 지은 모든 죄로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을 받든지, 이것은 우리 모두 앞에 놓인 선택”이라고 전했다.

지난 주, 6명의 여성들로 구성된 배

심원단은 히스패닉계 자경단원 출신이자 2급 살인 혐의로 기소된 조지 짐머만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짐머만은 지난 2012년 2월, 17살 소년인 트레이본 마틴(Trayvon Martin)을 권총으로 살해했다. 많은 사람들은 그에 대해 인종차별적인 동기가 있었다고 믿지만, 그는 총격이 정당방위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파이퍼 목사는 올란도에서 열린 캠퍼스 아웃리치 글로벌 스태프 컨퍼런스(Campus Outreach Global Staff Conference)에서, “이번 사건에 대해 침묵한 이유가 무엇이나”는 질문에 “내가 앞서 이번 사건에 대해 언급하지 않은 이유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기 때문이다. 나는 매우 당황했다”면서도 “미국인들은 역사적으로 흑인들의 죄는 잘 찾고, 백인들의 죄에 대해서는 관용적인 모습을 보인다”고 말했다.

파이퍼 목사는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더 깊은 질문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이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에서 이러한 모든 것이 어디로부터 나오는가? 이 모두가 어디를 향해 가는가? 하나님은 우리의 죄가 있는 곳으로 낮아져서 오시길 원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역사에 대한 믿음으로 인종차별·자만심 등 죄의 뿌리가 완전히 뽑히길 원하신다”고 전했다.

지난 3월 파이퍼 목사는 자신의 블로그에 “짐머만의 몸무게는 마틴보다 수백 파운드가 더 나가고, 짐머만은 마틴보다 10살이나 많은 사람이다. 그는 총을 갖고 있었고, 마틴은 총이 없었다. 그는 살해 혐의가 적용되기 전 체포된 것으로 보도됐다. 그가 트럭을 타고 마틴을 계속 쫓았기 때문이다. 그는 911에 전화해서 ‘출동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경찰이 길목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계속 마틴을 쫓았다. 마틴은 당시 여자친구(로 생각되는 여성)에게 전화를 걸어서 ‘쫓기고 있다’고 말했다. 모든 목격자들이 짐머만의 이야기를 확증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자신의 글에서 파이퍼 목사는 “인종은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커다란 역할을 한다. 이것은 성경적인 구원에 있어서도 중요한 이슈로, 신약에서도 민족의 실존을 둘러싸고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사건들이 나온다”고 설명했다.

3월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열린 사역자 컨퍼런스에서 파이퍼 목사는 인종차별과 관련된 이슈들을 지속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파이퍼 목사는 “대화가 진행이 될 때, 자리를 떠나지 말라. 이것은 여러분의 남은 삶에 의미를 지닌다. 가장 슬픈

건 사람들이 종교적인 화합을 시도하다가 상처를 입고 나가버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뉴욕시에서 개최된 ‘인종과 복음’에 대한 토론회에 팀 켈러 목사와 앤서니 브래들리 박사와 함께 참석할 당시에도, 파이퍼 목사는 인종차별의 성격을 “매우 오래된, 전 세계적인 문제”로 묘사하면서 “오직 죄와 타락에 대한 성경적인 서술로만 설명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파이퍼 목사는 교만의 죄는 인간이 하나님이 아닌 자신 안에서 만족을 찾으려고 한 결과이며, 인종차별의 바탕이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파이퍼 목사는 “인간은 하나님께 대적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문제가 나온 것이다. 창조주보다, 서로보다, 스스로를 높이는 것이 이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강혜진 기자

존 파이퍼 목사



Web Program Web Design

Our Services

- 기능,속도 문제 수정
- 프로그램 오류,버그,바이러스
- Maintenance 및 관리
- 어드민 기능 추가
- 웹프로젝트 추진
- 지원가능한 CMS :
OPENCART, CS-CART, PRESTASHOP, X-CART, MAGENTO, XE , WORDPRESS등
- 메인페이지 리뉴얼
- 어플 제작(안드로이드)

기독교일보 웹개발 사업팀
T. 213 718 1512
chdailya@gmail.com

청바지에 모히칸 머리...美 힐송교회의 ‘파격’

칼 렌츠 담임목사, 청년들에게 교회 벽 낮추다

“모히칸 머리에 블랙진, 민소매 티셔츠에 걸쳐 입은 청남방, 접어 올린 소매 아래엔 눈에 띄는 문신”

어느 힙합 스타를 묘사한 것이 아니다. 젊은 복음주의 목회자들이 청년복음화의 꿈을 갖고 모여드는 뉴욕에서, 최근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한 교회 담임목사의 주일예배 옷차림이다.

AP통신은 19일 ‘파격’으로 유명한 뉴욕 힐송교회 칼 렌츠(Carl Lentz) 목사와 그의 사역에 관해 보도했다. 호주 힐송교회의 해외 지성전 격인 뉴욕 힐송교회는 요즘 맨하탄에서도 젊은 뉴요커들에게 가장 ‘핫’한 장소로 꼽힌다.



뉴욕 힐송교회의 칼 렌츠 목사

2010년 가을 처음 개척 당시만 해도 매주 예배에 600여 명이 모였지만 3년도 채 되지 않아 5,500명으로 그 수가 불어 최근에는 주일에는 예배를 6부에 걸쳐서 드린다.

이토록 빠른 성장은 물론 전 세계적으로 청년들에게 사랑 받고 있는 호주 힐송교회의 영향력에 상당 부분 기인한다. 그러나 그것뿐만은 아니다.

34세로 그 역시 아직은 청년인 렌츠 목사는 그 스타일 만큼이나 파격적인 예배로 유명하다. 그가 인도하는 예배는 파티나 콘서트처럼 시끌벅적하고, 때로 U2나 레드 핫 칠리 페퍼스 같은 유명 밴드가 초청될 때면 교회 같은 유명 밴드가 초청될 때면 교회는 발 디딜 틈조차 없이 붐빈다.

렌츠 목사가 청년들 사이를 설세 없이 왔다갔다하며 농담과 음악 이야기를 간간히 섞은 설교를 전하면 아무 곳이나 자기가 원하는 곳에 자유롭게 앉은 청년들은 아이폰 등에 내용을 받아 적곤 한다.

그 중 한 명인 메레디스 앤더슨은 “만약 이 곳도 모두가 엄숙한 옷차림에 예배드리는, 그러니까 모두가 생각하는 그런 교회 같았다면 어땠을지 모르겠다”며 “하지만 이 곳은 젊은 사람들로 가득하다. 그래서 더 편안함을 느낀다”고 말했다.

AP는 이처럼 청년들이 갖고 있는 교회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뜨리고, 교회의 벽을 낮춘 것이 많은 청년들을 이 곳으로 불러모으는 이유라고 분석했다. 청년들이 마치 교회에 나오는 것을 친구들과의 모임에 나가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느끼고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일반적인 교회들에서는 적용하지 못했던 마약 중독을 치료 중인 청년들까지도 이 곳을 찾아온다.

렌츠 목사와 그가 인도하는 예배의 ‘교회답지 못함’을 지적하는 비판의 목소리도 많은 것도 사실이지만, 렌츠 목사는 “그러한 비판은 오히려 내게 힘이 된다”며, “많은 이들이 우려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가 빛이 바라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우리가 전하고자 하는 것은 언제나 예수님이며, 오직 예수님입니다.”

이는 그가 설교에서 자주 강조하는 메시지다.

한편, 이처럼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본질에만 충실하다면, 각각의 색의 모습으로 다양각색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값진 일이 아니냐고 그는 오히려 되묻곤 한다.

“이 도시에는 20만 명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는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는 슬픈 일입니다... 복음은 각 사람에게 가장 맞는 방법으로 그들을 찾아가요. 교회들이 주는 느낌은 다 다르고, 우리 교회와 맞지 않는 사람들은 다른 교회로 찾아가겠죠. 그렇다고 해도 그래서 한 영혼이 구원 받는다면 그 교회는 귀하지 않나요?”

손현정 기자

가정 칼럼

이혼의 상처에 대한 이해와 용납

“이혼 후에 몇 년간 미칠 것처럼 힘들었어요. 제 잘못이 아니었는데도 사람들의 시선은 차가웠어요. 못한 남편이었어도 제가 많이 의지하고 있었나 봐요. 옆에 늘 보던 사람이 없어지니까 심적으로 견디기 힘들었어요. 남들은 쉽게 쉽게 이혼하고들 하는데 제가 정말 못한 인간이어서 그런 건지... 정말 겨우겨우 견디며 살았어요...”



강선영 목사

불화가 지속되는 부모의 부부관계를 오랫동안 보여주는 것이라고 심리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마치 지진이 계속되는 땅 위에 흔들리며 사는 것 같은 불안을 계속해서 심어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지진이 계속돼서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땅 위에 지은 집에서 그대로 견디며 살 수 있을까요. 그런 무너지기 직전의 집에서 ‘언제 무너질지 몰라서 죽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인내해야 한다’며 강요할 수 있을까요?

남편의 폭력과 거듭되는 외도에 시달리다 결혼 8년 만에 이혼한 J씨는 이혼 이후에 겪은 극심한 고통과 상처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위 사람들과 사회의 반응은 차가웠고 어딜 가도 위로를 받지 못했습니다. 더구나 다니던 교회에서도 오폭할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가장 가까웠던 구역장에게 자신의 심정을 털어놓았다가 전혀 이해받을 수 없었고 비난어린 시선을 깊이 감지하고 다시는 말할 수 없었습니다.

성경에서도 이혼은 될 수 있으면 금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불행은 막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부모의 이혼은 가정의 파괴와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혼란을 동반한 환경의 변화를 겪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혼 이후에 적어도 3년 이상은 이혼의 후유증과 상처로 인한 고통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혼을 막는 것입니다. 다만 이혼의 고통보다 더 끔찍한 고통을 날마다 당하며 행복과는 거리가 멀게 ‘견디며’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자신의 편협한 시각으로 이혼한 사람들에게 비난의 상처를 주면 안 됩니다. 교회만큼 이 문제에 배타적인 곳이 없을 정도로 이혼한 사람들이 자신의 속마음을 이야기하지 못합니다. 이제 교회는 이혼자들의 상처

그러므로 어쩔 수 없이 이혼한 사람들에게 또다시 상처를 주면 안 됩니다. 이 시대에 이혼은 너무 흔하고 쉬운 현상처럼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혼보다 더 못한 부부관계를 마치못해 지속하면서 자녀들에게 큰 고통을 안겨주는 부모도 많음을 간과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서도 이혼은 될 수 있으면 금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불행은 막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부모의 이혼은 가정의 파괴와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혼란을 동반한 환경의 변화를 겪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혼 이후에 적어도 3년 이상은 이혼의 후유증과 상처로 인한 고통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혼을 막는 것입니다. 다만 이혼의 고통보다 더 끔찍한 고통을 날마다 당하며 행복과는 거리가 멀게 ‘견디며’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자신의 편협한 시각으로 이혼한 사람들에게 비난의 상처를 주면 안 됩니다. 교회만큼 이 문제에 배타적인 곳이 없을 정도로 이혼한 사람들이 자신의 속마음을 이야기하지 못합니다. 이제 교회는 이혼자들의 상처

그러므로 어쩔 수 없이 이혼한 사람들에게 또다시 상처를 주면 안 됩니다. 이 시대에 이혼은 너무 흔하고 쉬운 현상처럼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혼보다 더 못한 부부관계를 마치못해 지속하면서 자녀들에게 큰 고통을 안겨주는 부모도 많음을 간과하면 안 됩니다.

이혼, 해답은 아니지만... 편협한 시각으로 정죄해선 안돼

이제 교회가 나서 이혼자 상처 위한 치유그룹 활성화해야

니다. 이십 여 년 이어진 폭력을 좀 더 일찍 차단할 수도 있었을텐데, 주님의 사랑으로 인내를 중용한 것이 너무 미안했습니다.

물론 이혼이 해답은 아닙니다. 될 수 있으면 이혼은 막아야겠지요. 그러나 이혼 이후에 심리적 안정을 찾고 자신의 길을 잘 가고 있는 분들을 보면서 무조건, 어떤 경우에도 ‘이혼은 안된다’라는 식의 정죄하는 사고는 바뀌어야 할 것입니다. 아래의 사례처럼 습관적 외도가 배우자의 가슴을 후벼 파는 듯한 고통을 끊임없이 주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남편의 외도는 끊임없이 이어졌어요. 한 번은 용서했지만 그 이후에도 질긴 습관처럼 끊어지지 않았어요. 애들 때문에라도 이혼만은 안하고 싶었지만 계속 거듭되는 외도로 신뢰가 깨지고 늘 남편을 의심하게 되는 것이 싫었어요. 도저히 못 참아서 남편에게 화를 내면 남편은 오히려 의부증이 생긴 거라며 저를 힐난해요. 나중에 증거를 들이대면 그때는 아무 소리 못하고... 잘못은 남편이 했는데 나중에는 모든 게 내 잘못이라고 자책하면서 우울증까지 생겼어요. 부부 사이가 자꾸 힘들어지니까 애들도 불안증이 생긴 것 같았어요. 애들 때문에 더 괴로워요...”

성경에 몇 가지 이혼에 대한 허용의 기준이 있지만 한 가지가 깨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면 모든 방법을 동원해 가정의 와해를 막아야 할 것이고, 상처 입은 가족 모두를 도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몇 가지의 고쳐지지 않는 악한 행위는 부부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원인이 됩니다. 배우자의 외도는 단 한 번만이라도 일어난다면 부부관계에 치명적입니다. 겨우 한번은 용서했다고 해도 이미 금이 간 부부의 관계가 회복되려면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더구나 연이어 계속 외도 행위가 이어진다면 지속 가능성은 점점 희박해집니다.

를 위한 치유그룹을 활성화하고 그들의 상처를 신속히 치료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이혼하지 않는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한 노력과 더불어, 이미 어쩔 수 없는 사유로 이혼한 상처입은 사람들의 치유를 함께 도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혼자에게 가장 비난을 보내는 유형의 사람들은 자신도 이혼하고 싶지만 사회적 신앙적 제약 때문에 이혼을 못하고 겉으로 고상한 척하는 위선적 모습을 지닌 이들이 많습니다.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것은 자신의 상처 때문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비난을 중지해야 합니다.

당신 주위에는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이 러저러한 사유로 이혼한 후 그 상처를 부둥켜안고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혼 이후 우울증이 깊어져 찾아오는 분들을 만나다보면 그분들의 상처가 얼마나 깊은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급격한 환경적 변화와 심리적 변화, 그리고 주변사람들의 냉소적 태도와 질타 등으로 숨을 쉴 수 없는 분들이 많습니다. 한때 이혼하면 지옥가는 줄 알았던 나같은 사람들이 여전히 변하지 않는 인식의 잣대를 들이대며 또 한번 아물지 않은 상처에 또 다른 상처를 끼얹는 것은 아닌지 성찰해 보아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이혼이라는 불행한 상황을 결코 만들지 않도록 결혼 전 교육이 철저히 이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이미 이혼의 상처를 경험한 사람에게 대한 배려와 치유적 포용의 태도 또한 우리 모두가 인식해야 하는 이 시대의 중요한 과제가 되었음을 받아들여야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고 행복해길 바란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니라(딤후 2:4)

한국상담심리치료센터 강선영 소장

남가주 복음화에 앞장서는 교회 연합 선교교회

LA 지역

한천영 담임목사 갈릴리온교회

강진웅 담임목사 갈보리민음교회

엘리아 김 담임목사 나눔과 섬김의 교회

박현성 담임목사 여성열린문교회

진유철 담임목사 여성순복음교회

나성한인교회

김광삼 담임목사 여성제일교회

정우성 담임목사 남가주광염교회

김요섭 담임목사 남가주리더교회

서건오 담임목사 새로남교회

김성광 담임목사 성재복음선교교회

최운형 담임목사 세계선교교회

박승부 장로 세계의료선교사육성재단

조인수 담임목사 써니사이드교회

이경애 목사, 이은우 목사 요한 선교교회

김세환 담임목사 엘에이연합감리교회

정장수 담임목사 올림픽장로교회

류종길 담임목사 임마누엘선교교회

신승훈 담임목사 주님의영광교회

대표 김갑선 목사 지구촌 농업선교회

이명수 담임목사 청운교회

민중기 담임목사 충현선교교회

강지원 담임목사 한우리장로교회

김기섭 담임목사 LA사랑의교회

교회입니다 선교교회

LA 동부 지역

이희철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영양예배 오후 1:00
어린이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성령집회 오후 8:00
금요성경공부 오후 8:00

갯스윌연합교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교회
904 E D St., Ontario, CA 91764
T. (909) 268-4279 / gwa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EM)
3부 오전 11: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오전 6:00 (토)

박해성 담임목사

남가주헬로쉽교회
순전한 말씀으로 열매맺는 진리의 공동체
375 N. Towne Ave., Pomona, CA 91767
T. (909) 397-5737 / nfcus.com

주일예배 오전 11시
주일학교 오전 11시
성경공부 오후 1: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토요일새벽기도회 오전 6:00

김성일 담임목사

빅토빌예수마음교회
제자훈련사역과 성령사역이 조화를 이루는 성도공동체
T. (760) 220-3263, (760) 542-9366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00
4부예배 오후 12:50
대학청년부예배 오후 12:50

새벽예배 화-금 오전 5:30
토 오전 6: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고태형 담임목사

선한목자장로교회
선포하고 가르치는교회 sunhanchurch.com
1816 S.Desire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965-3443 / F. (626)965-0404

1부예배 오전 7:45
2부예배 오전 9:45
3부예배 오전 11:45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45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오전 6:00 (토)

고승희 담임목사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15
3부예배 오전 11:45
EM예배 오전 11:45

청년예배 오후 1:45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오전 6:00 (토)

박신철 담임목사

인랜드교회
성령이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 622-2324, F. (909) 622-1480

백성현 목사, **백성영** 목사
백성이나 시 소양권 사용
여러분의 환영

주의사랑 선교 수양관
아버지의 마음과 신부의 영성 교육센터
11373 Oasis Rd. Pinon Hills, CA 92372
T.(714)932-8993, (760)868-8583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금요일기도회 오후 9:00

이춘준 담임목사

창대교회
173 E.Dumas St., San Bernardino, CA 92408
T.(909) 388-2940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창스년부 오전 11:00
유년 유아부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오전 6:00 (토)
금요일기도회 오후 8:00

전길성 담임목사

크로스로드교회
말씀과 성령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제자되어
영혼구원과 세계선교 비전선교를 생명의 공동체
2600 Grand Avenue, Chino Hills, CA 91709
T. (909) 627-0201 http://go2cross.org

1부예배 오전 7:45
2부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45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오전 6:00 (토)
금요일기도회 오후 8:00

양성필 담임목사

하나로커뮤니티교회
하나님의 꿈이 있는 공동체
1861 E. Romirer St., La Puente, CA 91744
T. (626) 912-6600

사우스 베이 지역

정상용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영양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1부예배(EM) 오전 11:00
2부예배(EM) 오후 1:15
중고등부예배(EM) 오전 11:00
금요 중보기도회 오후 9-11시

나성금란연합감리교회
3153 W.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310) 973-5106 / F. (310) 973-7429

김영구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45
주일학교 오후 12:00
성경공부 주일 오후 2: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45

나눔장로교회
꿈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넘치는 교회
3521 Lomita Blvd #202 Torrance, CA 90505
T. (310) 404-6219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1: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15 (화-금)
주일학교 유/초등부 오전 11:00
중고등부 오전 10:00
성가대연습 오전 10:20

서보천 담임목사

돌로스교회
영혼 구원하여 제자삼는 교회
1925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951-3153 / doulorschurch.com

권영국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30
2부예배(EM) 오전 9:45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청년예배 오후 1:00
중/고예배 오전 11:00
유아유치부예배 오전 11:00

대홍장로교회
망글까지 내 증인이되라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310) 719-2244 / dkpc.org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30
금요찬양예배 오후 7:20

박성규 담임목사

주님세운교회
Vision 7300으로 지역사회와 세계복음화에 힘쓰는 교회
2911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T. (310) 325-4020 / F. (310) 325-4025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청년부예배(EM) 오후 1:30

강신권 담임목사

세계성경장로교회
신통(通)하고 인통(通)하며 물통(通)하여 만사형통합시다!
17002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 (424) 257-8169 / F. (424)257-8170

이중용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2: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코너스톤교회
이 땅의 참교회, 말씀대로의 교회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 F. (310) 530-8400

김바울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30
4부예배 오후 1:15(EM청년)
5부예배 오후 3:00(EM청년)

장애우예배 오전 10:00
Toddler - Youth 오전 11:30
새벽예배 할-토 오전 5:30am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토렌스 조은교회
www.torrancegcc.org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T. (310) 370-5500 / F. (310) 370-2009

파사데나, 라크라센타, 라캐냐다, 글렌데일, 벨리, 벤추라 지역

주일 예배 오전 11:00
주일 성경공부/세교무반 오후 1: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오전 6:00 (화-금)
오전 7:00 (토)

류준영 담임목사

글렌데일한인장로교회
예수님을 붙잡고, 자라는, 건강한 교회!
4002 Verdugo Rd., Los Angeles, CA 90065
T. (323) 254-4012 / gpk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8:00
점심예배 오후 2:00

EM예배 오전 9:30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30
토 오전 6:00

이성현 담임목사

드림교회
하나님의 꿈을 이뤄 드리는 교회
1305 E. Colorado Blvd., Pasadena, CA 91106
T. (626) 793-0880 / F. (626) 793-6412

최상훈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후 12:00
아동부예배 오전 11:50
학생회예배 오후 12:00

수요중보기도회 오후 7: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벤추라감리교회
성령님이 역사하여 예수님을 바리보게 하는 교회
4300 Telegraph Rd., Ventura, CA 93003
T. (805) 658-2171 / venturakorea.com

EM예배 오전 10:00
스페인예배 오전 10:00
한국어 오전 10시 (월/수/금)
오전 12:00 (토/일)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오전 6:00 (토)
수요일예배 오후 7:45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성현경 담임목사

파사데나장로교회
새 사람, 새 교회, 새 세상을 열어나가는 신앙공동체
585 E. Colorado Blvd., Pasadena, CA 91101
T. (626) 795-6252 / F. (626) 584-6544

‘단기 선교’ 떠나는 여름, ‘땅밧기’는 선교지향적인가



한인교회들이 여름을 맞이하면서 다양한 나라로 단기선교를 떠나고 있다.

선교 전문가들 “공격적 모습 지양해야... 용어 개선도 방법”

여름이 되면서 많은 교회들이 ‘해외 단기 선교’를 계획하고 있다. 이 선교는 아직 복음이 널리 전해지지 않은 나라에 짧게는 3~4일, 길게는 일주일에서 10일 정도 머물며 다양한 방법으로 현지인들로 하여금 복음을 접하게 하는 일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많은 기독교인들은 소위 ‘땅밧기’라 불리는 기도 사역을 중요한 요소로 여기고 있다. ‘복음의 불모지’를 직접 ‘밧으며’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 확장에 초석이 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흔히 기독교인들은 성경 ‘여호수아(1:3, 6:2~5)’ 등에 나타난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땅밧기를 성경적 선교 전략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런데 일부 ‘땅밧기’가, 특히 타종교에 대해 다소 공격적인 형태를 띠면서 비판이 일기도 했다.

실제 몇 해 전 이 ‘땅밧기’ 관련 한 동영상 이 인터넷이 유포돼 사회적인 파장을 낳은 적이 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한 성경적·신앙적 재고를 요청하는 주장들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장훈태 교수(백석대 언론선교학)는 땅밧기가 사회적 문제로 불거졌을 당시 한 언론에 기고한 글에서 “땅밧기 기도는 정복주의적·승리주의적 발상으로 기독교 선교에 방해가 된다”며 “교회가 단기 선교팀을 통해 하는 땅밧기 기도는 민간신앙적인 혼합주의가 내포된 것이다. 기독교인이 하나님의 창조론을 올바르게 이해한다면 땅밧기에 큰 의미를 두지 않을 것”이라는 매우 부정적인 시각을 나타낸 바 있다.

장 교수는 “사실 성경에서 땅을 밧으면서 여러고성을 돌라고 한 것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명령에 순종한 것”이라며 “이외에 성경 어디에도 영적 전쟁을 위해 땅을 밧고 기도를 하라는 말씀은 찾아볼 수 없다. 하나님

의 말씀을 왜곡하는 것은 절대 안 된다. 땅 밧기는 자기 총족과 유익을 위한 것일 뿐, 선교 현장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김성욱 교수(총신대 선교학)도 “성경의 구속사에 나타난 역사적 사건을 21세기에 그대로 적용하는 부분에 대해선 신중해야 한다”며 “선교 이론 중에는 땅밧기 기도를 신사도운동과 연관시켜 설명하는 것도 있어 땅밧기라는 용어를 무비판적으로 사용하는 것도 생각해 봐야 할 문제다. 성경적인 배경이 배제된 공격적인 모습은 분명 지양해야 할 대상”이라고 조심스런 모습을 보였다.

선교한국파트너스 상임위원장인 한철호 선교사 역시 “올 여름에도 많은 단기여행팀들이 선교지를 방문하면서 소위 말하는 ‘땅 밧기’를 하게 될 것”이라며 “그들의 기도는 행위나 그와 더불어 일어나는 압도적인 행위를 의로 여기지 말아야 할 것이다. 기도가 능력이 아니라,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능력”이라고 당부했다.

노윤식 교수(성결대 선교학)는 기존 땅밧기라는 용어가 다소 거부감을 유발한다며, 용어 개선을 제안하기도 했다. 그는 “일반에게 부정적 함의로 인식되었던 땅밧기 기도를, 일반에게 편안함과 함께함의 의미를 주는 ‘동행 기도’ 등으로 용어를 변경하면 기독교 선교의 호전적이고 배타적인 면모를 약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노 교수는 땅밧기의 본질까지 부정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땅밧기 기도는 영적 전쟁 중 하나의 선교 전략으로 약한 영의 세력, 즉 마귀의 세력을 물리치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이 땅에 이루려는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있다”며 “그 기도는 어둠, 사망, 저주, 질병, 악한 세력에 대적하여 빛, 생명, 축복, 평강, 선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선교 전략으로서 지속적으로 실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스라엘 고고학계, 다윗왕 궁전 터 발견 주장



이스라엘 문화재청과 히브리대학교의 공동 발굴팀은 다윗왕 시대 궁전 터로 보이는 유적을 발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진=FoxNews 기사 페이지 캡처)

이스라엘 고고학자들이 다윗왕의 궁전 터를 발굴했다고 주장해 학계의 비상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폭스뉴스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22일 이스라엘 문화재청과 히브리대학교 소속의 발굴팀이 “예루살렘 남부 요새 도시인 키르베트 케이아파(Khirbet Qeiyafa)에서 7년여간 발굴 작업을 벌여 온 끝에, 다윗왕의 궁전으로 추정되는 유적을 발견했다”고 주장했다.

발굴팀은 이 유적이 고대 유대 도시 샤아라임(Sha'arayim)에 세워진 다윗왕의 첫번째 궁전 터라고 보고 있다. 이 지역과 관련된 기록은 성경의 사무엘상 17장 52절에 나온다.

이들 발굴팀은 이 유적을 다윗왕 시기의 것으로 보는 주요 근거와 관련해서, 궁전 터가 다윗왕 통치 기간인 기원전 10세기에 건설됐다는 점과, 유대인이 제사를 드릴 때 사용한 물건들이 발견된 것은 물론, 유대 율법이 금기시한 돼지고기 뼈가 나오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었다.

궁전은 1000제곱미터 정도에 걸쳐져 있

으며, 성벽의 높이는 30미터에 달하는 규모다. 도시 한 가운데 위치한 궁전 주위로는 낮은 높이의 집들이 10여 채 가량 모여 있으며, 저장고로 보이는 건물도 발굴됐다.

발굴팀의 선임 연구원 요시 가르핀켈은 현지 언론인 더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과의 인터뷰에서 “이번에 발굴한 유적은 다윗왕 시대 요새 도시의 존재를 입증하는 가장 훌륭한 증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같은 발견에 고고학계의 관심이 모이고 있는 가운데 일부에서는 이 유적을 다윗왕의 궁전 터로 보기에는 근거가 빈약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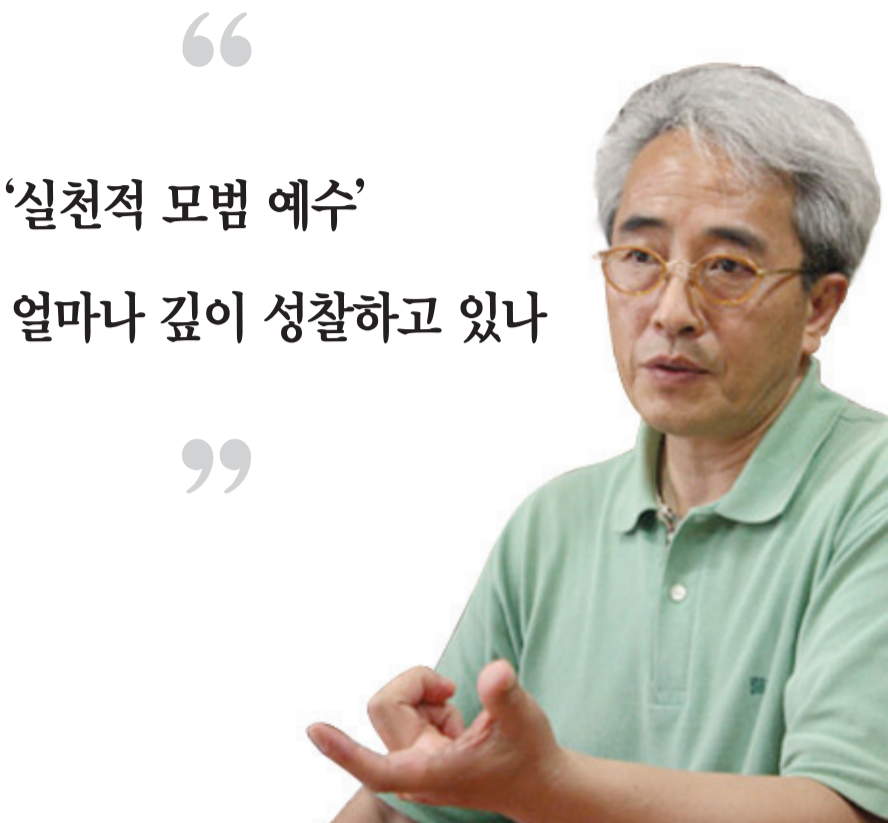
텔아비브대학교 고고학자인 이스라엘 핀켈스타인 박사는 “유적이 기원전 10세기에 건설된 것은 맞지만, 팔레스타인이나 가나안 등이 지역에 살던 다른 민족에 의해 건설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일부에서는 다윗왕의 실존 여부 자체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기도 하다.

한편, 이스라엘 당국은 이 유적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하는 계획을 추진 중에 있다.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Fax. 213) 402-5136

「눈먼 종교를 위한 인문학」 펴낸 김경집 교수



‘실천적 모범 예수’ 얼마나 깊이 성찰하고 있나

시공사 서초동 사옥에서 만난 인문학자 김경집 교수는 “가톨릭은 제도가 교조적이지만 성경 해석은 그렇지 않다”며 “개신교는 제도가 그렇지 않지만, 설교에 종말론적 해석이 곳곳에 들어가면서 교조적이고 사회에 무관심한 것 같다”고 말했다.

가톨릭대 교수 출신으로 서산 해미를 오가며 지역문화 운동에 앞장서고 있는, 인문학자 김경집 교수가 ‘인문학자의 눈으로 본 성서, 그리고 한국 기독교’라는 부제를 단 「눈먼 종교를 위한 인문학(시공사)」을 펴냈다. 개신교 집안에서 누나와 함께 가톨릭으로 개종(?)하는 등 ‘에큐메니칼하게’ 살아왔다는 김 교수는, 이 책에서 개신교와 가톨릭의 교조주의·근본주의적이고 지나치게 성직자 중심적인 부분을 비판하고 있다. ‘복음서 제대로 읽기’를 통해 예수의 삶과 가르침을 헤아리고 이해하며 실천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경집 교수는 ‘복음서 제대로 읽기’에 대해 “교회가 공허한 이념은 있지만, 그 실천 방식에 대해서는 크게 고민하지 않는 것 같다”며 “신자들 스스로가 정말 복음서를 읽고서 자신의 삶이 변화되고, 저 성경을 읽고 교회에 들어온 후의 나와 예전의 나가 다르다고 느끼지 못한다면, 말로만 영생을 믿고 구원을 믿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라고 이야기했다.

그가 제안한 복음서 읽기 방식은 ‘텍스트(text)로서의 복음서’가 아니라, ‘컨텍스트(context)로서의 복음서’를 어떻게 읽어낼 것인가, 즉 ‘어떻게 내면화시키고 실천할 것인가’로 모아진다. 예수의 초월성을 부정하진 않지만, 예수의 인간적인 면모를 함께 보면서 ‘실천적 모범으로서 예수의 삶’을 읽어 내자는 것. “실제 삶으로 보여주시면서 ‘팔로잉’이라고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면, 굳이 이 땅에까지 내려오실 이유가 있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성찰이 신앙인인 나, 그리고 내가 속한 교회에서 얼마나 깊이 이뤄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예수 탄생’ 사건에서 우리는 대부분 예수와 동정녀 마리아, 동방박사와 목동들 같은 이야기만 보는데, 실제로 우리의 모습은 마리아가 예수를 낳던 여관방에 있었던 사람들과 같았다는 것이 김 교수의 설명이다.

“분명 투숙객들 모두 ‘그 임산부’를 문을 열고서 목격하지 않았을까요? 누구든 ‘이리 들어오세요’라고 했어야 했는데, 누구도 자신의 방을 양보하지 않았습니까. 아이를 낳는데 한밤중이지만 소리가 들리지 않았겠습니까? 저 멀리서 동방박사가 왔는데도 그 누가 문을 열어줬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저는 ‘그게 나였구나’라는 걸 보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 단추가 잘못 켜어지니, 예수님의 행적에서 항상 거울로서의 내 모습, ‘내가 어떻게 하고 있을까’가 빠지게 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의 말씀을 회복하고, 나가서 다시 이를 실천할 수 있는 것이 성경의 역할이자 교회의 역할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이런 측면으로만 봐서도 피곤하겠지만, 예수 믿고 복 받고 천국 간다는 것 말고 이런 측면으로는 거의 보지 않아요. 공동체적 연대성에 대한 복음서의 해석과 이해가 좀더 커져야 합니다. 가톨릭과 개신교가 합치면 1천만명은 될텐데, 세상이 이렇게까지 무례하고 황폐하고 비인격화된 것은 한 쪽으로만 성경을 읽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렇듯 ‘악한 세상’이 교회에는 은총일 수 있다고 그는 덧붙혔다. “세상 기업이 마음대로 해고하고 노조활동했다고 하고 한다고 해서 ‘왜 그러느냐’고 하기 힘들다. 하지만 교회가 하는 학교나 병원에서는 이것이 가능할 수 있지요. 이왕이면 도덕적이고 상상할 수 있는, 복음의 실천을 통해 모범을 보일 기회입니다.” 세상이 교회를 비판하는 이유도, 정말 낮은 곳에 가서 열심히 일

하고 봉사하고 모범을 보이던 모습이 적어졌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비판’을 당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현재 교회 관련 비판 서적들은 그야말로 포화 상태임에도 ‘또 하나의 책’을 쓴 이유에 대해서는 “세상이나 대형교회 문제니 그런 제도나 구조를 백날 이야기해서 바뀌는 게 아니다”며 “진정 변화가 일어나려면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공동체 사람들이 스스로 변화해야 하는데, 이는 신학적인 교리나 설교가 아니라 예수를 접하고 성경을 읽어서 내 삶이 어떻게 변하고 그래서 이 공동체가 얼마나 복음에 가까운지 고민하는 데서 나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제 책이 비판적으로 보인다면, 자주 다른 눈으로 분석하려 하고 교조적으로 컨트롤하려 하니 그런 것”이라고도 했다.

가톨릭 신도의 입장에서 개신교에 대한 바람도 전했다. “어딜 가든지 가톨릭은 보수적이고 교조적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더 보수적이고 교조적으로 변해서 가톨릭이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것처럼 보인다는 게 문제입니다. 물론 다른 나라 경우처럼 우리나라 천주교가 돈 문제나 성 추문이 크게 연루된 적이 없긴 합니다. 이는 개신교가 반성해야 할 부분이지요. ‘프로테스탄트’, 진짜 민주적이고 개혁적이어야 할 사람들이 반대에 있다는 점은 좀 고민을 해 봐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책 속에 ‘인문학’에 대한 구체적인 접근이 뚜렷하지 않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는 인문학을 단순히 19세기적 카테고리인 ‘문사철(文·史·哲)’이 아니라, ‘인간의 삶에 대한 모든 성찰이 담겨져 있는 학문’이라 정의한다”며 “제가 책을 쓴 가장 큰 목적은 신학과 이론을 빼고, 예수께서 가장 쉬



「눈먼 종교를 위한 인문학」 시공사, 368쪽

운 언어로 이야기하고 가장 질박한 방식으로 모범을 보인 그 자체를 보자는 것”이라고 응답했다. 모든 이설(理說)을 빼고, 성경을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의 관계’로 순수하게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성경 읽기’를 추구한다는 말이다.

“감히 ‘인문학’이라는 단어에 동의한 이유는, 복음서를 교조적 입장에서 따라 읽는 게 아니라, 예수가 사람들 내게 복음을 던지면서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지’ 하는 관점입니다. 사실 거창하게 인문학이라기보다는, 복음서에 대한 실천적 해석학 쪽으로 했으면 좋겠네요.”

O.C./얼바인 지역

이철 담임목사 가나안장로교회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가는 교회 17200 Clark Ave., Bellflower, CA 90706

김영길 담임목사 감사한인교회 사랑받고 사랑받는 교회, 전도와 선교에 정성을 다하는 교회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민경엽 담임목사 나침반교회 모이는교회 흠여지는교회 1200 W Lambert Rd, Brea CA 92821

손병렬 담임목사 남가주동신교회 하나님이 마음껏 역사하시는 교회 2505 Yorba Linda Bl., Fullerton, CA 92831

박용덕 담임목사 남가주빛내리교회 God First 거룩한 MVP 공동체 1201 S. Beach Blvd. #110 La Habra, CA90631

허귀암 담임목사 남가주 잠실교회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로 세우는 교회 13000 San Antonio Dr., Norwalk, CA 90650

김민재 담임목사 예진교회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친구' 공동체 955 W Imperial Hwy Brea, CA 92821

이서 담임목사 미주비전교회 역동적인 예배가 살아있는 비전공동체 1655 West Broadway St., Anaheim, CA 92802

손인식 담임목사 베델한인교회 우리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방익수 담임목사 사랑의방주교회 믿음을 믿고 믿음대로 살고 믿음으로 정복하여 공동체를 살리는 교회 13955 Yale Ave, Irvine, CA 92620

신원규 담임목사 삼성장로교회 주님 주신 축복받은 길은 성도의 삶이고 구제의 삶으로 살려 501 S. Idaho St., La Habra, CA 90631

세리토스장로교회 11841 E. 178th St., Artesia, CA 90701

한중수 담임목사 얼바인침례교회 5101 Walnut Ave., Irvine, CA 92604

최상준 담임목사 얼바인 한민음교회 믿음으로 하나되는 교회 18182 Culver Dr., Irvine, CA 92612

김삼도 목사 얼바인 할렐루야교회 15520 Rockfield Blvd., #F Irvine, CA 92618

지사론 담임목사 열방사랑선교센터 9850 Garden Grove Blvd Garden Grove CA 92844

우대현 담임목사 영광빛복음교회 1200 W. Alvarez Ave., #A Orange, CA 92868

엄영민 담임목사 오렌지카운티제일장로교회 열린교회, 주는교회, 키우는교회 8500 Bolsa Ave., Westminster, CA 92683

한기홍 담임목사 은혜한인교회 행복한 교회 삼급받은교회 세계선교를 마무리짓는 교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남성수 담임목사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영혼을 구원하며 제자삼는 교회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

목회 담당 앤드류 김 목사 선교 담당 안근성 목사 작은자 교회 3세대가 함께 성령안에서 자유롭게 예배하는 교회 1681 W Broadway Anaheim, CA 92802

김철민 장로 CMF선교회 가정을 세우는 CMF Ministries 3463 1/2 Pumice St., Norwalk, CA 90650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Fax. 213) 402-5136

박세록 대표 SAM CARE INTERNATIONAL 1309W. Valencia Dr., Unit #A, Fullerton, CA 92833

엘에이 정식허가 고급하숙 입주자화제\$ 책임보험 5성급호텔의 시설 아침,저녁제공 케이블 tv 초고속인터넷,냉장고,세탁장,교통편리 1호점: 8가 + Catalina, 정식허가 2호점: 5성급호텔의 시설 (올림픽+원저) 3호점: 최고급 5성급호텔 시설 (3가+옥스퍼드) T. 213.327.4710

31년 전통의
HQ구연산 명가
Since 1982

확장 이전 기념 세일!

100불 이상 구입시마다
미네랄 회색 바다 소금
1파운드 (16온스-40불상당)

무료

확장기념으로 특별한 상품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구연산이나 소금을 100불 이상 구입시 마다
Sea of Cortez 무공해 천연 미네랄 회색 바다소금
1파운드(16온스 - 시판가 40불)를 증정하며,
200불 이상 구매 고객분들께는 산삼 한 뿌리도 증정합니다.

당뇨, 고혈압, 변비에
효과가 너무 좋아
더욱 널리 소문난

HQ구연산

국민 건강 식품입니다. 가장 저렴하면서도 가장 탁월한 효능의 구연산!



알파2병 + 오리지널6병 = 8병
or 오리지널 8병
프로모션 A
\$280 **\$100** No Tax

알파3병 + 오리지널4병 = 7병
프로모션 B
\$270 **\$100** No Tax

알파5병 + 오리지널1병 = 6병
프로모션 C
\$280 **\$100** No Tax



한 병은 2-3개월분 / 7병은 1년 6개월분



Kosher Approved Organic / 8온스(226그램) / 성분: 구연산 100%

구연산복용체험담

구연산 보급 30년에 각종 체험사례를 모았지만 너무 많아 이곳에 다 적지 못합니다. 구연산을 매일 2-3회 평생 쓰시면 암, 치매 등 예방하고 병원, 약값이 절약됩니다.

- ★ 늘 피곤하던 몸이 가벼워지면서 삶의 활력이 넘쳐 좋았다.
- ★ 간질환을 앓고 있다가 구연산 덕분에 완전히 회복되었다.
- ★ 당뇨가 심했는데 복용 3일 후 뚝뚝 떨어져 당약을 조절할.
- ★ 혈압 200이 넘음. 복용 후 120정도. 이제는 혈압약 안먹음.
- ★ 누나의 소개로.. 지금은 보청기를 끼지 않아도 잘 들린다.
- ★ 신장염으로 온몸이 통통 부어 올랐는데 구연산이 낫게했다.
- ★ 여드름에 구연산 마사지를 해주니 맥 못 추는 것을 알았다.
- ★ 손, 발바닥 무좀을 구연산에 담갔다니 점점 회복이 되었다.
- ★ 방광에 대한 자각증상이 있었는데 잠복 후 사라져 버렸다.
- ★ 대상포진으로 가려워 죽을 지경이었는데 먹고 바로니 나옴.
- ★ 비염, 콧물 및 피부 알러지가 완전히 가셔서 계속 복용중임.
- ★ 7년간 피부암이었는데 3주 동안 먹는 것만으로도 치료됨.
- ★ 아토피를 앓았는데 구연산 물을 먹고 바로면서 나아졌다.
- ★ 온몸에 진물을 동반한 두드러기와 가려움증이 사라졌다.
- ★ 나는 당뇨와 17가지 합병증으로 자살을 3번 시도했다. 그러나 구연산 복용 후 2주 만에 완전 정상. 후에 목사 됨.
- ★ 린스처럼 사용했더니 탈모가 중지되고 가려움증이 없어졌다.
- ★ 요리할 때 식초 대신에 사용하니가 물기가 없어서 좋았다.
- ★ 당뇨로 잃은 왼쪽 눈, 두 달 만에 시력을 완전히 되찾았다.
- ★ 외출 시에 벌레물린 곳, 몸의 상처를 구연산으로 해결했다.
- ★ 가정상비약처럼 두고 항상 구연산부터 찾는 습관이 생겼다.
- ★ 전 농림부장관 30년 다른 약은 일체 끊고 구연산만 복용. 피검사 후 혈액이 20대 같음. 얼굴에 검버섯, 기미 사라짐. 79세인데 장기 복용하니 두뇌가 청년시절처럼 되돌아 올
- ★ 파킨슨병으로 고생하다가 구연산 두 달 먹고 테니스도 친다.
- ★ 통갈비, 잔갈비를 구연산에 재니 핏물이 빠지고 맛도 좋음.
- ★ 나무를 무칠 때 식초 대신 사용하면 훨씬 맛이 있고 좋음.
- ★ 밥을 할 때나 국을 끓일 때 구연산을 첨가하면 맛이 좋음.
- ★ 공부하는 아이에게 줬더니 졸지도 않고 집중이 훨씬 잘됨.
- ★ 운전할 때 구연산 물을 마시면 졸리지도 않고 피곤치 않음.
- ★ 눈이 침침할 때 구연산을 찍어 바로니 눈이 점점 밝아졌음.
- ★ 허가 심하게 갈라져 약을 먹어도 안되는데 구연산이 해결함
- ★ 위장병으로 속이 무척 쓰렸는데 구연산을 복용하고 나아짐.
- ★ 50년된 만성변비가 구연산 3일 복용 후 정상 변을 보게 됨.
- ★ 허리통증, 어깨결림이 구연산 10일 복용 후 완전히 사라짐.
- ★ 오십견으로 고통이 심했는데 1주일 후 통증이 거의 없어짐.
- ★ 구연산 복용 45일 후 42인치 허리가 36인치로 줄어들었음.
- ★ 만성 아토피와 간암이 구연산 1년 복용 후 완전히 사라졌음.
- ★ 구연산 복용 후에 피부가 너무 좋아지고 얼굴색이 젊어졌음.
- ★ 양손가락이 완전히 오그라들었는데 6개월 후 완전히 펴졌음.
- ★ 다리가 저리고 걸을 수가 없었는데 보름 후 증상이 사라짐.
- ★ 유방암이 구연산만 장기 복용 후 완전히 사라짐. 목사 사모.
- ★ 10년간 사타구니의 피부암으로 고생하다가 점차 회복되어감.
- ★ 쌀이나 야채나 과일을 씻을 때 구연산으로 행구면 농약 끝.
- ★ 만성피로와 간장질환을 구연산을 먹고 지방간도 낮고 회복.
- ★ 30년된 부정맥이 구연산 복용 후 3일만에 정상맥박으로 됨.
- ★ 눈수술 후 안압이 잡히질 않았는데 45일만에 정상이 되었다.

HQ구연산은 매실의 80배, 레몬의 200배 농도의 100% 유기농 천연 알칼리 발효식품
HQ 구연산 효과는 확실합니다!
자신있게 권합니다!

자도자도 피곤, 만성피로는 만성병의 근원
당뇨 / 고혈압 / 만성피로 100% 환율 보장

노벨상을 3회씩이나 수상한 경이로운 식품

- **바르다넨 박사** (핀란드 1945)
구연산이 "구연산 사이클"의 열쇠가 되는 <오기자로 초산>이 되며 인체의 피로를 제거해 준다.
- **크레브스 박사** (영국 1953)
구연산이 인체 내 피로물질인 젖산을 빨리 분해하고 축적을 막아 피로회복과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해주어 피로회복과 노화를 방지한다는 구연산 크레브스 사이클 이론으로 노벨 생리 의학상을 받았다.
- **브르크 박사, 린넨 박사** (미국, 서독 1964 공동수상)
구연산은 체내에서 모든 영양물질을 완전 소화 흡수하여 인체내의 자연치유력을 최대로 하여 준다.

노벨상 홈페이지(www.nobelprize.org)를 방문해 검색란에서 Citric Acid를 검색해 보시면 금방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연산은 약이 아니고 식품이면서 인체에 다음과 같은 도움을 준다.

- ◇ 구연산을 섭취하면 크레브스사이클의 출발물질이 되어 신진대사가 원활하여짐과 동시에 인체 피로물질을 신속히 배출하고 혈액을 맑게 하여 순환을 도와 2시간 내에 피로한 기색이 사라지게 한다.
- ◇ 구연산은 입맛을 당기게 할 뿐 아니라 식품에 붙은 세균을 살균시켜 소화불량, 위장병을 없애주며 장내의 활동이 원활해지고 장벽을 깨끗이 청소해줌으로 변비를 없애준다.
- ◇ 구연산 속의 변환효소는 혈관의 수축작용에 관계하여 혈압을 모두 낮추는데 획기적이다.
- ◇ 구연산은 체내 세포 내의 혈액을 산성화시키고 근육을 굳게 하는 독극물인 젖산(유산)과 초성포도산(필빈산)을 태워 없애주면서 당을 조절하여 당뇨병을 호전시킨다.
- ◇ 구연산은 간장에 해로운 중성지방이 쌓이는 것을 막고 독소를 분해시켜 간장을 보호하며 간 기능의 부담을 없애준다. 또한 지방간이나 고콜레스테롤에서 해방되도록 해 준다.
- ◇ 구연산은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술독과 담배로 인한 일산화탄소를 분해시켜 부부생활이 즐거워진다.
- ◇ 구연산은 정혈과 살균작용이 뛰어나므로 나쁜 피를 맑게 정화시켜 체외로 배출하는 역할을 한다.
- ◇ 구연산은 피부와 혈액순환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알러지와 가려움증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
- ◇ 구연산은 발암물질인 과산화지질을 억제하고 세포의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만들어 기미의 원인인 멜라닌 색소를 배출시켜 버린다.
- ◇ 구연산은 젖산을 분해시켜 근육을 유연하게 할 뿐 아니라 통증을 없애는 부신호르몬을 분비시켜 요통, 어깨결림, 오십견을 없애준다. 또한 심한 운동으로 인한 인대가 늘어나거나 허리 통증을 없애준다.
- ◇ 구연산은 세포가 노화되어 동맥경화증, 고혈압, 간장병, 류머티즘 등과 같은 성인병의 유발과 노화의 원인인 유산을 분해시켜 피로를 없애주며, 산성화 된 인체를 약알칼리성으로 개선하여 준다.
- ◇ 혈액을 약알칼리성으로 유지하는, 즉 혈액을 맑게 하는 작용이 있으므로 자연히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해주므로 신체의 모든 기능을 정상적으로 활동하게 한다.
- ◇ 만성신장병으로 신장의 기능이 저하, 부종, 고혈압, 전해질이상, 빈혈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그 정도가 심해 요독증에 이를 경우 신장의 기능을 최대로 증진시켜 노폐물이 쌓이지 않도록 도와준다.
- ◇ 좌골신경통, 요통 등의 통증을 완화해 주는데, 이는 약알칼리로 체질개선이 되기 때문이며, 맑은 혈액으로 혈액순환을 좋게 하여 자연 치유력이 최대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 ◇ 숙취에 효과적이며 간기능을 강화시킨다. 또한 산성혈액을 정화하여 항체체질로 바꾸는 작용을 한다.

이부영박사는 왜?

의사들의 검진결과에 대한 처방전을 구연산으로 내려도 괜찮을 것이라고 하였을까?
이렇게 만병 통치에 가까운 구연산을 왜 의사나 약사들이 권하지 않고 있었을까?
이과대학이나 약학대학에서 구연산을 가르치지 않고 있으니 알 리가 없고 안다고 해도 값싼 구연산으로 병을 고치려고 처방해 준다면 돈벌이도 안되어 병원 간판을 다 뜯어내려 할 판이니 누가 그 같은 짓을 한단 말인가. 때로는 내 자신도 이런 신비의 효능의 구연산을 혼자만 알고 건강을 지망하면 될 터인데 무엇 때문에 의학계의 눈총을 받아야 하며 욕을 먹는 걸까 생각해 본다.

건강은 행복의 원천이니 누구나 건강을 스스로 지켜가야 한다. 그런 면에서 구연산은 실질적인 건강의 파수꾼이라 할 만하다. 나는 구연산을 복용한 지 이제 막 20년째 들어서고 있다. 아마도 우리나라에서는 구연산의 최장기 복용 기록 보유자가 될 것도 같고 구연산의 신비성에 대하여 니만큼 느끼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도 드물 것 같다. 그러나 애독자들에게만은 건강을 선사해 드리지 않을 수 없어 이 글을 써 보낸다.

이부영박사 현, 서울대학교 의대 명예교수, 대한의학회에서 주는 분수의학상을 비롯하여 국내외에서 많은 상을 받음
1966년에 스위스 취리히 응연연구소 수료
응연파 분석가 자격 취득
*** 위 이부영박사 내용은 인터넷에서 쉽게 확인해 볼 수 있는 공개된 정보입니다.



HQ Health, Inc. / HQ 산삼 L. A. 본 점 (213)365-2100
세리토스점 (562)760-2359

833 S. Western Ave. #1 Los Angeles, CA 90005



월-금: 10am-7pm, 토:10am-5pm

Life

성지순례 칼럼

이스라엘이 가장 기억하기 싫어하는 곳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가장 기억하기 싫은 장소는 아마 '가데스 바네아'일 것이다. 이곳에서 있었던 한 사건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38년을 더 광야에서 보내야만 했기 때문이다(신 2:14).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지 13개월여 지나 가나안 접경 지역인 친 광야의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하였다. 이곳에서 모세는 백성들의 요구에 따라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모두 12명을 선출하여 가나안을 정탐하게 했다(신 1:22-24).

40일간의 정탐을 마치고 돌아온 12명은 가나안에서 가져온 과일들을 보이며 그 곳은 정말 젓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다고 보고한다(민 13:23-27). '젓과 꿀이 흐르는 땅', 성경은 가나안 땅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다(출 3:8, 17, 출 13:5 etc.). 사람들은 가나안 땅을 한 마디로 살기 좋은 땅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이다(민 14:7).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였던 12 정탐꾼 중 10명이 그 땅을 차지할 수 없을 것이라는 보고를 한 것이다. 이유인즉, 가나안의 거주민들이 자신들보다 강하기 때문이다(민 13:28, 31). 그들의 보고에 의하면 가나안에 살고 있는 백성들은 모두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었다(민 13:32). 그러나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당시 가나안에 살고 있던 거주민들 가운데는 아나 자손들처럼 신장이 장대한 자들(민 13:33, 신 9:1)도 있었지만, 모두 그런 것은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백성들 모두가 신장이 장대한 자라고 한 것은, 아나 자손들로 인해 겁을 먹은 정탐꾼들의 과장된 보고였다.

이러한 보고를 들은 백성들은 슬럼이기 시작했다. 그때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돌아온 자들 중에서 여분네(Jephunneh)의 아들 갈렙(Caleb)이 그들을 진정시키면서 말한다.

“올라갑시다. 올라가서 점령합시다. 우리는 반드시 그 땅을 점령할 수 있습니다.” 눈(Nun)의 아들 여호수아(Jehoshua)도 갈렙의 주장에 동조했다.

그러나 다른 정탐꾼들은 그들이 자신들보다 훨씬 강하기 때문에 도저히 그들을 당해낼 수가 없다고 반박하였다. 더욱이 자신들은 아나 자손들과 비교해서 스스로를 때뚜기와 같았다고 보고했다(민 13:33). 백성들은 마치 다수결의 원칙을 따르기로 한 듯, 긍정적인 보고를 한 갈렙이나 여호수아보다는 부정적인 보고를 한 10명의 말을 더 믿었다.

이에 백성들은 크게 낙심하여 소리를 지르며 밤새도록 통곡했다. 그들은 모세(Moses)와 아론(Aaron)을 원망하며 “차라리 이집트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그 원망은 하나님께로 이어졌다. 하나님께서는 “어찌하여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맞아 죽게 하시는가?” 하는 백성들의 원망을 들으시고(민 14:27), 그들에게 ‘사십년 동안의 광야 생활’(민 32:13)이라는 형벌을 내리셨다.

40년은 가나안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친 것이다(민 14:34). 이로써 이스라엘 백성은 젓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38년을 더 광야에서 생활해야만 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민 14:24, 38) 모두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했다.

이러한 배경을 가진 가데스 바네아. 그곳은 이집트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가장 기억하기 싫은 장소일 것이다. 한국에 있는 모 여행사가 이러한 성경적인 배경을 가진 가데스 바네아로 성지순례를 간다는 광고를 하며 모객을 한 적이 있었다. 가데스 바네아는 이스라엘과의 국경에 가까이 있기 때문에 민간인들이 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나로서는, 정말 뜻밖이어서 전화를 걸어 알아본 적이 있었다. 그러나 가데스 바네아는 갈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아무리 광고라 해도 너무 한다’고 하면서 가데스 바네아에 가는 것을 접을 수밖에 없었다.

가데스 바네아는 때때로 가세스(민 13:26) 또는 게데스(수 15:23)로 언급되는 성읍으로,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중요한 곳이다.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이곳에서 죽었고(민 20:1), 모세가 화에 못 이겨 불손한 태도로 물이 나오도록 바위를 내리친 곳이 바로 이곳이다(민 20:11). 또한 열두 정탐꾼이 약속의 땅에 정탐 갔다가 되돌아온 곳이기도 하다(민 13:26).

가데스란 이름은 ‘거룩’이란 뜻의 히브리어 ‘카테시’와 연관이 있을 거라고 추정하지만, 바네아의 어원은 아직 알려져 있지 않고 있다. 1905년 이후 시나이 반도 북쪽의 와디 엘-아인에 있는 지금의 아인 엘-쿠데이랏, 성경의 가데스 바네아라는 설이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리고 그곳에서 철기시대의 여러 요새들이 발굴되었다. 그중 가장 오래된 타원형 구조물은 주전 10세기의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그 요새가 파괴된 후 여러 해 동안 버려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다른 요새는 주전 8세기에 건축된 것으로 주전 7세기, 즉 므낫세 왕 때 파괴되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요새에서는 히브리어로 새겨진 두 개의 오스트라콘이 출토되었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이 지역을 상당 기간 실제적으로 지배하였다는 것을 말하여 주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세번째의 요새는 주전 586년 바빌로니아에 의해 무너진 것으로 보이는데, 이 요새는 요시아 왕 때 세워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런데 아인 엘-쿠데이랏에서는 청동기 시대 후반 또는 철기시대 1기 유물로 추정되는 도기 파편은 하나도 발견되지 않고 있다. 이 점은 민수기에서 보듯이 이스라엘이 그곳에 머물렀다는 증거를 찾으려는 역사학자 및 고고학자들에게는 많은 문제를 제기한다. 그래서 회의론자들은 이것을 문제 삼아 출애굽과 그 이후 잇따른 가나안 정복 사건의 진실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또 다른 이들은 이를 다르게 해석하여, 가데스 바네아를 아인 엘-쿠데이랏으로 보지 않고 아인 케데이스와 아인 케세이 메라는 다른 장소를 가데스 바네아로 보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민수기에서 언급된 가데스 바네아는 특정한 장소를 가리키기 보다는 넓은 지역을 가리키는 것

으로 보이는데(민 33:36), 성경에서는 그곳이 특별히 의미있는 거류지였다고 암시하고 있지는 않다. 앞으로 이곳과 그 밖의 지역에서 이루어질 발굴들은, 성경에 나오는 장소와 관련된 해결되지 않는 의문을 풀어 줄 것이다.

또 이곳은 외국인의 출입이 금지된 지역이기에 갈 수가 없다.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 국경 쪽에서 망원경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곳을 보려면 이스라엘에 있는 호로샤 전망대에서 보아야 할 것이다. 이곳에서는 또 하나의 시내산으로 추정되는 제벨 할랄과 가데스 바네아의 평원을 볼 수 있다.

우리는 정말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는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 야훼 하나님은 그들이 걱정 없이 살아갈 낙원을 예비해 놓으신 분이시다. 그리고 종살이하던 그들을 위해 앞장서 싸우셔서 이집트에서 건져내고 자유인으로 만들어 주신 분이시다. 마치 아들을 보살피는 아버지와 같이 안아주시는 분이시고, 항상 어느 곳에 있든지 동행하시며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보호해 주시는 분이시다. 이스라엘 백성과 동행하시면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인도해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그러면 그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하였던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분이신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나를 죄에서 해방시키고 구원의 자녀 삼으신 분이시며, 많은 삶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안전하게 이끌어주시고 또 많은 기적과 은혜를 베풀어주시며 오를 여기까지 있게 하신 분이시다.

우리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였는가를 생각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분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비교하여야 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분께서 본인들을 돌보고 계시다는 것을 많은 사례와 체험을 통해서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 앞에 놓인 여러 가지 문제와 미래에 대한 불안함과 두려움도 있었다. 자기들의 눈으로 본 것 이외에는 믿지 못

하고, 자기들의 관점에서 세상을 보는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하나님과 약속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오늘 우리도 출애굽 당시의 이스라엘 사람 처럼 마음에 그런 두려움과 불안함이 짝 들어차 있지는 않는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

그러한 마음이 든다면 다시 흥해를 따라 돌아서 광야로 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자기의 지식과 안목에 의지하지 않고 어린 아이와 같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믿음이 들어설 때까지 광야를 돌아야 할 것이다.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내 앞길의 문제들을 내가 해결해 보려고 하면, 우리는 항상 불안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절대로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다. 끝까지 그것을 고집한다면 그 교만이 무너질 때까지 돌아야 할 것이다.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할 수 있으셨을 텐데, 바로 들여보내시지 않으셨을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믿음과 순종의 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일 것이다. 그것은 교만을 버리는 훈련이다. ‘교만은 곧 패망의 앞잡이’이기 때문이다. 교만을 버릴 줄 아는 사람이 되지 못하고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 결국 망할 것을... 그래서 광야에서 훈련을 받게 하신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한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하고 무슨 일든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교만, 자기 이외에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것 같고, 또 이 문제를 자기가 놓으면 낭떠러지로 떨어지거나 앓을까 하는 두려움과 불안함을 짊어지고 놓지 못하는 교만. 이런 것들을 훈련으로 제거할 수 있는 학교가 바로 광야 학교이다. 광야는 믿음의 훈련장이다.

주님의 말씀을 따르겠다고 헌신한 우리 크리스천들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해결해주시길 믿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곳이 바로 가데스 바네아이다.

김용규 목사
령천교회 중동 선교사



장재효목사의 반세기목회와 선교확장 보고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롬 14:8)



이 책을 구입 탐독하실 때 영적신앙과 사역에 성령님께서 인도 역사하심이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 책값으로 지불하신 10불은 한,미간 탁송운임과 구독자에게 배송 우편비로 사용될 뿐, 책값은 무료로 국제성은복음선교회에서 제공하는 것입니다.



구입문의 : 213.739.0403

말씀에 이끌리며 성령에게 쓰임받자

“말씀에 이끌리며 성령에게 쓰임받은 진실되고 충성스런 종의 고백은, 언제나 내가 한것은 아무것도 없었고 오직 주님께 쓰임받은 결과, 성령께서 역사하신 성과뿐이더라!”

장재효 지음

크리스천이라면 나같은 죄인 구원하신 그 크신 은혜의 고난과 대속의 죽임당하심에 대한 마음에 감동적인 부담감을 느끼며 살게 마련입니다. 특히 사명자로 택하시고, 보내시고, 세우시고, 붙들어 쓰심을 받는 목회자(선교사)라면 영적가치관이 예수님과 일치해야하고 구령성공을 위한 사명의지가 투철하여 금식기도하며 살리시는 마지막 순간까지 필생의 사명지로 복음의 제물이 되어 그리스도의 나라확장을 위해 애간장 태우며 노심초사 하시는 참된목자, 선한 사역자라면, 요즘같이 교계가 교리적으로나 특히 영적으로 혼란하여 교회가 침체한채 목회자들마저 인위적이고 인본주의적 실교와 목회로 하나님 말씀의 권능과 하나님 절대주권적 권위와 존엄을 훼손내지 능멸하는 것같이 교회마저 세속화 추세로 변질해가는 차제에 성령님의 계시와 조명, 체험과 감동에 의한 영감적 체질신앙은 지금도 진리정통한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되는 몸된교회로 계속 부흥하며 영적으로 성숙되어 인류 복음화를 위한 시대적 사명, 구령성공을 위해 더욱 요긴하고 힘있게 쓰임 받을 수 있다는 실증적 목회사역에서 성령님의 역사로 이루어 내신 생생한 체험, 그 중 일부의 내용이 본 책에 담겨있습니다.

진실로 바른 목회를 열망하며 책임목회의 사명자로 더 많은 구령성공을 위해 받은 바 주님의 은혜보답과 맡기신 사역의 영적성공을 위해 진총간력하시는 목회자라면 이 책을 탐독하심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이 시대에 요긴하고 더욱 힘있게 쓰임받을 유능한 사역자가 되게 하실줄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곡히 축원합니다.”

만남과 관계



진 유철 목사
나성순복음교회

산다는 것은 만남의 연속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있는 한 만남은 계속되기에 생각이 올바른 사람들은 늘 좋은 만남을 기대하며 살게 됩니다. 삶 속에서 좋은 만남과 좋은 관계는 희망과 기쁨을 주고 위로와 능력이 되지만, 어떤 만남과 관계는 상대에게 아픔과 상처를 주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좋은 만남과 관계를 만들 수 있다면 그곳에는 행복과 아름다움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만남의 능력은 지속적으로 만나는 사람을 닮게 만듭니다. 전혀 다른 만남이라도 부부가 되어 함께 오래 살다보면 서로 친형제, 자매처럼 닮게 되는 것처럼, 자기도 모르게 그 사람의 영향력을 받아서 좋은 나쁜든 변해 갑니다. 그래서 사랑을 알려면 지금 그 사람이 만나고

있는 대상이 누구인가를 알면 된다고 할 만큼, 사람은 만남과 관계를 통해 알게 모르게 영향을 주고받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를 증거하고 가르치고 훈련하여 실천하게 하는 교회의 중요한 사명도 바로 만남과 관계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렇기에 목회자로서 성도를 인도해 갈 때 제일 신경을 쓰게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좋은 만남과 좋은 관계를 갖게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말에 좋은 씨를 뿌려도 병충 하나, 또는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 한 마리를 못 잡으면 그 농사가 헛되듯이, 별 것 아닌 언어, 행동, 예절과 태도들로 인하여 관계가 깨어지면 하나님까지 멀어지고 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교회와 성도는 만남과 관계를 허무는

악한 일들을 이겨낼 수 있는 내공이 있어야 합니다.

올바른 만남과 관계를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과 그의 만남과 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난 인간과의 만남과 관계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누구든지 믿음으로 만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동일하신 우리의 구세주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그분을 만나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운명이 바뀌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주인이 되신 올바른 신앙생활이 되면, 어느 날 내게 다가오는 일에 신앙적인 반응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평범한 일상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은 모든 만남을 가치 있고 의미 있는 만남으로 만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연히 다가오는 기회를 놓치지 않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의 증거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부터 다음 주간까지 순

복음 세계선교회 아세안 총회 선교사 가족 35분들과의 소중한 만남이 있습니다. 필리핀,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아랍에미리트, 요르단, 레바논, 터키, 이집트 등 총 10개국에서 참으로 귀한 선교사 가족들이 방문하는 큰 축복을 받았습

니다.

선교사님들의 간증과 말씀으로 매 예배 우리의 가슴에는 눈물과 열정이 솟아오르고, 또 엘리야를 쉬게 한 로렐나무처럼 쓰임받기를 소원하는 저희들을 통해 선교사님 가족들은 위로와 사랑으로 채워지는 좋은 만남이 되고 있습니다.

끝까지 우리의 이득을 먼저 챙기지 않고 주인 되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관계가 되어 계속하여 아름답고 풍성한 하늘나라 열매가 맺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살롬!

I love you so much!



엄 영민 목사
오렌지카운티제일장로교회

따르릉! 전화벨 소리가 요란스럽게 울린다. 한참 다른 일로 전화를 받고 있는 중이었다. 발신자 신호를 보니 오래 전 텍사스로 이사를 간 한 권사님의 이름이 뜬다. 무슨 일인지 알 듯 하다. 오늘이 바로 내 생일이다. 몇 년 전 타주로 이사를 가셨고 대부분의 경우 이 정도 되면 다 잊을 법도 한데 어김없이 과거의 담임목사인 내 생일을 기억하시고 전화를 주신 것이다.

쑥스럽지만 전화주신 것이 고마워 전화를 돌려가 팔십이 훨씬 넘으셨음에도 여전히 낭랑한 목소리로 반가워하며 전화를 받으신다. 일 년 전 생일날 전화를 주셨으니 꼭 일 년 만이다. 무엇을 또 이렇게 일부러 전화까지 주셨느냐며 미안해 하자 내가 숨이 붙어있는 한은 어찌 잊겠느냐 하신다. 내가 무얼 했다고 숨이 붙어있는 한 잊지 못할 사람이란 말인가? 잠시 과분한 사랑을 받는다 싶은 생각이 스쳐간다.

청년부 전도사로부터 시작해서

오랜 기간 교회를 섬기면서 젊은이들부터 연세 많으신 어른들까지 여러 세대를 섬겼다. 개인차는 있겠지만 대체로 젊은이들은 함께 있을 때는 웃고 떠들며 재미있게 지내지만 지나고 나면 다시 찾아오는 법이 드물다. 이십년이 넘는 오랜 기간을 한 자리에 있었지만 내가 그리워, 날 찾아온 젊은이는 극히 소수에 불과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런 반면 어른들은 같이 있을 때에 그리 가까이 하지 못했었다 싶은 분들조차도 떠나면 잊지 않고 소식을 전하고 안부를 전해온다. 담임목사를 잊지 않을뿐 아니라 교회를 잊지 않고 늘 그리워하는 분들도 많다.

언젠가 한 권사님은 다른 곳으로 이사해서 교회를 떠난 지 한참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거액의 헌금을 보내 교회에 큰 힘이 되었던 일도 있었다. 무슨 차이일까 싶다. 아무리 생각해도 단순한 나이 차이만은 아닌 듯싶다.

전 먼저 집안 어른에게 고하던 옛 마음이 배어있다.

나 자신을 비롯해서 우리 세대나 그보다 젊은 세대들에게서는 거의 찾아보기 어려운 모습이다. 전화를 걸어오신 권사님은 마치 이 날을 위해 일년을 기다려 오신 분처럼 말 한 마디 한 마디 속에 그리움과 사랑이 진하게 배어있다. 본인의 이야기는 간략하게 하신 후 교회 식구들이며 우리집 아이들 소식을 물으신 후 이사 갈 때 가지고 가셨던 우리 식구 사진을 다른 곳에 두고 와서 볼 수가 없다고 아쉬워 하신다. 그 말을 듣고 무심할 수 없어 가족 사진을 한 장 보내드리겠다고 아이처럼 기뻐하시며 몇 번이고 다짐을 받으신다.

그리고 보니 심방을 하다보면 많은 권사님들이 우리 아이들의 이름을 줄줄이 외우고 계셨다. 늘 기도하시는 까닭이다.

젊은 세대 중에도 그럴 분이 없지는 않았지만 이 분들과 같지는 않

을 것이다. 부족한 가운데도 오늘까지 이렇게 교회를 섬기고 쓰임 받은 것은 전적으로 이 귀한 분들의 기도 덕분이다.

그리고 보면 이 분들이야말로 동네 한 복판의 느티나무처럼 교회를 지켜오고 목회자를 지탱해 해주는 영적인 기둥들이었다. 많은 이야기를 하시고 싶었지만 목회자의 바쁜 사정을 아는 까닭에 부랴부랴 전화를 끊으시는 권사님의 음성에 아쉬움이 가득하다.

그러면서 마지막 하시는 인사 말씀이 영어로 "I love you so much!" 하신다. 한국어보다는 덜 쑥스러워 영어를 쓰셨겠지만 그 진지한 사랑이 찌릿하게 가슴에 전해온다. "God Bless you!" 나도 영어로 맞장구 쳤다.

아! 참 지상의 천국인 교회서만 나눌 수 있는 아름다운 교제와 사랑이다. 교회 안팎의 어르신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와 축복을 드린다.

"I Love you so much too!"

기독교일보

편집고문 : 박희민, 정재호, 이원상, 박기호, 방지각, 김중언, 고승희, 민중기, 정우성, 김혜성
 발행인 : 이인규 편집국장 : 토마스 멩
 지사망 : 로스앤젤레스, 뉴욕, 샌프란시스코, 워싱턴DC, 시카고, 애틀랜타, 시애틀

대표전화 : (213) 739-0403 / 팩스 : (213) 402-5136
 E-mail : chdailya@gmail.com / Payable to order : Christianity Daily
 주소 :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농협 **홍삼**은 100% 대한민국 민족기업

한삼인은 정직합니다

www.korginseng.com 323.737.8888

척추 전문 새로운 한방병원

비수술 척추 디스크치료 척추 한방 병원

비수술 척추 **추나 치료**
 척추 교정으로 **척추질환**과 **척추 통증 치료** 예방이 가능합니다.

특진안내

- ▶ 중풍
- ▶ 안면신경마비
- ▶ 척추디스크 요통
- ▶ 목디스크, 어깨통증
- ▶ 무릎 관절염
- ▶ 위장병, 변비
- ▶ 갱년기 장애
- ▶ 산전산후 보약
- ▶ 어린이보약, 성장탕
- ▶ 심장병, 노이로제
- ▶ 두통, 치통, 산후통
- ▶ 관절통

진료과목

- 침구과
- 한방 소아과
- 한방 내과
- 한방 신경정신과
- 한방 산부인과

원장 장재수
 40년 경력 척추 자세교정 전문가

T. 213-219-2739 3513 W. Olympic Blvd #102, Los Angeles, CA 90019

이상명 목사의 성서로 문화 읽기

“길을 만드는 사람이 역사를 만든다”



이상명 목사
미주장신대 총장

“사람은 길을 만들고, 길은 역사를 만든다”는 말이 있다. 길을 타우고 만드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 길을 만드는 사람이 극복해야 하는 것은 뜨거운 사막이나 험준한 산악이나 혹한의 만년설이나 울창한 숲과 같은 외부적 대상만이 아니다. 더 큰 적은 그 여정 속에서 스멀스멀 찾아오는 깊은 고독감과 미답의 세계에 대해 막연한 불안과 공포를 느끼는 자기 자신일 것이다.

인류는 수많은 길에서 만나고 헤어지고 충돌하고 융화하고 흥하고 망하면서 역사를 이어 나갔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이집트를 탈출하여 광야로 나간 해방길, 동서 문명을 융합시킨 알렉산더 대제의 동방원정의 길, 로마 제국의 동맥이 되어 번영을 가져다준 로마 가도(街道, 바이킹의 침략의 길, 두 문명인 기독교와 이

슬람의 비극적 충돌을 야기한 십자군 원정길, 세 갈래 길, 즉 초원길, 비단길과 바다길로 개척된 동서 교류의 발전을 짊어지고 문물을 오가게 한 실크로드 등. 이렇듯 인류는 세계에 큰 변화를 가져왔던 전쟁의 역사도, 나라와 민족을 구했던 영웅의 역사도, 새로운 문명을 열었던 역사도 길에서 이루어졌다. 로마 가도처럼 이민족을 침공하기 위해 건설되었던 길이 제국의 국력이 쇠진하면서 게르만족과 훈노족과 같은 북방 민족들이 로마를 도리어 침탈하는 길이 되기도 했다. 새로운 길의 열림과 함께 문명도 시작되었지만 광기와 폭압과 무자비한 정벌이 가져온 끔찍한 야만의 역사도 그 길 위에 아로새겨졌다.

본래 길은 없었다

본래 광야에도 산에도 바다에도 길은 없었다. 그곳에는 사람이 걸을 수 있는 길은 없었다. 길은 만들어져야 하고 그 길을 만들기 위해서는 누군가 그 길 위에서 고투하다가 죽어야 한다. 그리고 누군가가 그 죽은 자의 백골이 묻힌 그 길에서 또다시 새로운 길을 이어 나가야 한다. 그 끈질긴 길의 이어짐과 교착이 역사를 만들었다. 그래서 길은 삶이며, 그 길을 만드는 사람은 역사를 만드는 사람인 것이다. 길을 닦고 길을 가는 사람들은 성을 쌓고 그곳에 거주하는 사람들과는 다르다. 성을 쌓고 안주하는 사람은 부

단히 길을 내는 사람이 이길 수 없다. 프랑스의 석학 자크 아탈리(Jacques Attali)는 자신의 책 《호모 노마드 유목하는 인간》에서 21세기는 ‘유목민적 가치관’을 가진 새로운 인간들이 대거 출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유목민이란 한 가지 가치관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새로운 변화와 도전과 모험을 하면서 떠돌아다니는 사람이다. 성을 짓고서 그 안에 안주할 때도 전 정신은 사그라지고 온갖 물욕적이고 안일한 것에 도취되어 부박(浮薄)한 인생으로 전락하고 만다.

광야를 기억하라

본래 유목민이었던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에 정착하면서 그곳의 농경 문화와 농경신(바알와 아세라)을 자연스레 수용하고 말았다. 이집트를 탈출한 후 광야 길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 임재를 알리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일용할 양식을 주셨던 야훼 하나님의 강렬한 이야기도 가나안 정착 후 이스라엘 백성의 일상 저편으로 아스라이 사라지고 말았다. 성을 쌓은 솔로몬 시대가 가장 부유했지만 도처에서 타락과 몰락의 징후를 가장 많이 간직했던 때이기도 했다. 길에서 멈추는 순간 하나님을 향한 열정도 광야의 밝기운처럼 쉬 식고 말았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의 광야 시절을 다음과 같이 회고한다. ……나 주가 말한다. 네가 젊은 시절

에 얼마나 나에게 성실하였는지, 네가 신부 시절에 얼마나 나를 사랑하였는지, 저 광야에서, 씨를 뿌리지 못하는 저 땅에서, 내가 어떻게 나를 따랐는지, 내가 잘 기억하고 있다(렘 2:2, 새번역).

예레미야는 광야 시절 이스라엘이 정순한 새색시처럼 순수한 사랑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따랐다고 평한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그 무엇도 끼어들 틈이 없을 정도로 서로를 향한 밀착된 사랑의 관계가 유지되던 시기였다는 것이다. 즉 광야 시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첫사랑을 나누던 허니문 시기였다. 그러나 광야는 허니문을 나누기에는 너무나 거칠고 메마른 땅이었다.

“이집트 땅에서 우리를 이끌고 올라오신 분, 광야에서 우리를 인도하신 분, 그 황량하고 구덩이가 많은 땅에서, 죽음의 그림자가 짙은 그 메마른 땅에서, 어느 누구도 지나다니지 않고 어느 누구도 살지 않는 그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하고 묻지도 않는구나(렘 2:6, 새번역).

옛된 신부의 순애보를 써라

거친 광야 길이 오히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과 보호를 절절이 체험했던 장소였고, 그분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장소였다. 그러나 이동을 멈추고 땅을 차지한 후

에는 그 땅의 신들을 섬기고 그 문화에 동화되고 예측되어서 길을 잃고 말았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을 잃어버렸다. 이방 민족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본래 목적도 잊어버렸다(참고. 사 49:6). 길을 통해 하나님이 만드신 역사를 잊었기 때문이다.

창조적인 믿음으로 전인미답의 땅을 개척한 빌립처럼, 일상의 안일과 보장된 안전을 박차고 나가는 개척자의 정신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베드로전서는 우리를 낯선 땅에 거하는 나그네로 부른다.

사랑하는 형제들, 낯선 땅에서 나그네 생활을 하고 있는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영혼을 거슬러 싸움을 벌이는 육체적인 욕정을 멀리하십시오(벧전 2:11, 공동번역).

나그네는 정체성을 잃고 이 땅에서 기생하는 온갖 욕정에 물드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그 영혼에 덕지덕지 붙은 사탄 욕정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 비상할 수 없다. 성숙도 영성의 자람도 멈추고 만다. 순례자의 영성이 필요하다. 하나님과의 달콤하고 감미로운 허니문이 평생 지속되려면 세상의 헛된 욕망의 성(城)에 안주할 것이 아니라 거칠고 메마른 광야 길에서 옛된 신부의 순애보를 써내려가는 길을 택해야 하리라. 그 길이 나와 너를 생명으로 이어 주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길이다.

성경통독과 이해를 위한 스물 한 번째 지팡이



이학진 장로
성경통독과 이해를 위한
씩난 지팡이 저자

행전이 기록된 후에 기독교인들이 박해 당할 때에 쓰여진 것입니다.

일반서신의 역사적 배경

유대교는 전통을 이야기하고 기독교는 변혁을 말합니다. 전제 군주시대에 변혁을 이야기하면 박해는 당연한 산물입니다. 큰 박해와 이단의 준동을 역사적인 배경으로 하는 기독교 문헌인 일반서신은 어느 특정한 교회나 개인을 위하여 쓴 것이 아니고 일종의 회람의 형식으로 쓰여진 공동서신입니다. 이 박해는 로마제국의 박해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교를 핍박하는 그 시대의 철학과 유대교를 포함한 다른 종교 그리고 사이비 이단들의 도전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시대의 기독교에 대한 로마의 박해 역사는 네로 황제(AD 37-68년)가 64년에 정치적 실정을 만회하고자 기독교를 희생양으로 삼아 박해를 시작하였으며 로마와 그 변두리에서 발생하였고, 이 때에 바울과 베드로가 순교하였으며, 곧이어 티투스 황제는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을 점령하고 성전을 훼파하였습니다. 그리고 약 20년이 흘러 도미티안(Domitian) 황제 치하(약 AD 90-96년)에서 주로 로마와 소아시아 지방에서 박해가 발생하였습니다. 기독교인들은 황제 신에게 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박해를 받았으며 사도적 교부, 로마의 클레멘트가 순교하였고 사도 요한은 밧모 섬으로 유배되었습니다.

일반서신서의 서론, 히브리서(AD 67-69년 경)

기록자는 확인이 안되었으며 서신이라기 보다는 설교(시편 110편)로서 수신자는 주로 팔레스타인의 유대 공동체에서 소외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공동체들이 그 대상이며, 그들이 고대하던 주의 재림은 이루어지지 않는 가운데 계속된 핍박으로 인하여 첫 신앙의 열정이 식어진 사람들입니다. 주제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탁월성이며, 기록 목적은 예수구원(2:10)을 선포하기 위한 것으로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이 로마제국의 박해와 유대인들이 핍박

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기독교에 대한 배교를 경계하기 위하여 기록하였습니다(10:19-39).

그리고 히브리서는 제5복음서라고 불리웁니다. ‘사복음서가 그리스도의 지상사역을 소개해주고 있는데 반하여 히브리서는 그리스도의 천상사역을 소개해 준다’고 합니다. 히브리서 저자의 관점은 구원이 기독교 신앙의 완전한 계시로 보는 것으로(1:1-3). 기독교의 구원은 영원하며(5:9) 속죄와 기업과 언약도 영원하다(9:12, 15, 13:20)고 설명합니다.

본서의 특징적인 단어는 ‘더 나은’ 그리고 ‘더 좋은’이란 말인데 이는 그림자로서의 구약과 실체로서의 신약을 비교하기 위한 표현입니다. 이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한 모습을 생생하게 발견하게 됩니다.

1:1-10:18: 예수님을 구약의 여러 가지(7 가지) 요인들과 비교하는 말씀(사 41:25-42:9)입니다.

1-10장까지는 초기 기독교가 안팎으로 큰 어려움을 겪으면서, 유대교

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이 로마제국의 박해로 인하여 일어나는 기독교에 대한 배교를 경계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의 탁월성을 7가지의 비교로 기록하였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진리인 기독교가 고난과 박해를 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이 싸움은 우리만이 아닌, 우리의 연약한 무릎을 일으키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싸우는 것입니다.

11-12장에는 믿음이라는 주제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이 믿음을 강조하여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으며’(11:1-2)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에게 상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 것이니라’(11:6) 라는 말씀을 통해 믿음이란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그 뒤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여드름, 성공률 99%

효과 없을시 **100% 환불**

몸속의 원인을 다스리고
피부의 내면과 외면을
동시에 치료합니다.

첫상담 무료!

경산 한의과병원 원장 류재규
Kyung San Acupuncture Clinic
Tel: 213.380.0853
3030 W. Olympic Blvd., Suite 202-203(삼호관광 물 2층) LA, CA 90006
경산 한의과대학 교수

복새통

책으로 통하는 새로운 세상

REVIEW

[여름휴가, 책과 함께] 자유와 소망에 대하여

감옥과 수용소에서 피어나는 사랑과 신앙, 통찰

휴가철이 돌아왔다. 올해 나온 도서들을 중심으로 가족과 함께, 연인과 함께, 성도들과 함께 읽을 만한 도서들을 자유·여행·은혜·모험 등 네 가지 키워드로 소개한다. 그 첫번째는 갇힌 곳에서 생각해 보는 자유와 소망의 의미, 디트리히 본회퍼의 <옥중연서(복있는사람)>와 랭던 길키의 <산동 수용소(새물결플러스)>이다.



옥중연서
본회퍼 & 마리아 | 정현숙 역
복있는사람 | 402쪽

사랑을 갈구하고 희망을 노래하는 '인간 본회퍼'

감옥에서 약혼녀와 왕래한 2년간의 서신 모음집

제2차 세계대전이 막판을 향해 치닫던 1943년, 나치 정권에 의해 수감된 디트리히 본회퍼(Dietrich Bonhoeffer)는 약혼 상대였다. <옥중연서>는 본회퍼가 약혼녀 마리아 폰 베데미어(Maria von Wedemeyer)와 2년간 주고받던 실제 편지 모음집이다.

당시 '천재 신학자'로 불리면서도 잘못된 정치권력과 투쟁을 불사하던, 단호하고 추상 같았던 본회퍼의 모습만을 간직한 기독교인들에게 이 책은 그도 하나의 '인간'이었음을 웅변하고 있다. 본회퍼와 마리아는 약혼 관계였

지만, 본회퍼가 '감옥'에 갇히면서 몇 차례 만남을 갖지도 못한 채 생이별을 경험하게 된다. 이는 그들에게 더욱 애틋한 감정을 불러 일으켰고, 그래서 이들 사이에 오고간 서신에는 시작하는 연인들의 머뭇거림과 설렘이 가득하다.

이들에게 18년의 나이 차는 문제가 되지 않았다. 본회퍼는 마리아와의 만남을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 가운데 있다고 확신"했으며, "당신의 존재가 내가 처한 현재 상황에서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아마 상상조차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썼다. 그는 철학같은 어둠 속에서도 "날마다 이 행복이 주어졌다는 사실로 마음이 벅차오르"지만, 자신의 형편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얼마나 험난한 학교로 이끄셨는지 생각하며 마음이 숙연해 지곤 한다"고 고백한다.

간혀 있었지만, 용기를 북돋우는 쪽은 본회퍼였다. 편지 속에서의 그는, 날이 갈수록 절망적인 소식들이 엄습해 오는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동료 수감자들에게 '희망'을 불어넣고 있다. 가족과 약혼녀에게도 '석방 이후', '전쟁 이후'를 노래한다. 감옥 안에서, "지금껏 누려온 하나님의 선하심과 지금 이 순간에도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에 대해 한없이 감사드려야 함을 잠시도 잊지 않으려" 한다는 그의 말은 사도 바울을 떠올리게 한다.

그는 또 "가장 험난한 시간을 살아갈 때도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오히려 더욱 강하게 하나로 묶어주실 것임을 아는 것은 중요하다"고 말한다. 검열을 피해 몰래 전달된 편지에는 시를 써 보내

기도 하고, 좀더 가까운 곳에 와 주기를 부탁하기도 한다.

약혼녀 마리아는 그에 못지 않게 강인한 정신력을 편지 곳곳에서 보여 주기도 하고, 풋풋한 첫사랑과 함께 결혼 생활의 낭만을 꿈꾸는 소녀의 모습도 내보인다. 둘은 릴케의 책에 대해 왈가왈부하기도 하고, 악기를 배우는 것에 대해 티격태격하기도 하며, 결혼식 주례를 누구로 모실지나 신혼집 살림을 어떻게 할지 등 평범한 연인으로서의 모습도 그대로 보여 주고 있다.

본회퍼는 편지에서 모든 일에 태연 자약하는 '스토아식 태도'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함께하심을 알기에 실제로 고통을 견디며 진실로 기뻐하는 것이라는 그의 사상을 여러 차례 펼쳐보였고, 이는 감옥에서 삶으로 빛을 발했다. 각종 교통과 통신기기 발달로 죽음이나 군대 정도가 아니고는 '부재(不在)'와 '기약 없는 기다림'을 느끼기 힘든 시대, 이 '커피'는 우리에게 삶을 좀더 사랑하고 감사하라는 메시지를 전해준다.

수용소에 갇혀 살며 고민하는 '인간의 조건'

전쟁 속 고요한 포로의 인간 실존 보고서

'미친 버스 운전기사'를 끌어내려다 붙잡혀 안타까운 연애편지를 쓰고 있던 본회퍼와 같은 시대, 아시아에서도 같은 이름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다. 그러나 이곳 산동의 감옥은 '수용소'라는 번지수 아래, 2년간 2천여명의

서양인들이 공동생활을 시작했다.

이 2천여명 중 한 사람이었던 청년 랭던 길키는 20여년 후 신학자가 돼 당시 기억을 되살려 <산동 수용소(새물결플러스)>를 썼다. 이곳은 마치 군대처럼 나가면 만날 일 없는 사람들이 모였지만, 군대처럼 확고한 계급 사회가 아니었기에 질서와 공중도덕이 완전히 작동하지 못했다. 길키는 이곳에서 적지 않은 사람들이 '양심과 교양'을 내려놓는 모습을 고스란히 담았다.

수용소 안에서 사람들은 마치 '예비군복을 입은 사람들'처럼 행동한다. 명성도, 도덕도, 관습도 별 소용이 없었다. 오로지 '웁다운 옷, 식사다운 식사, 잠자리다운 잠자리'를 쟁취하려는 욕망만이 꿈틀댔고, 이를 위해 명성과 도덕과 관습을 이용하려 했다. 물건을 훔치다 걸려도, 형벌이 고작 계산판에 이름이 적히는 정도였기 때문이다. 수용소 바깥에선 명성과 도덕, 관습을 위해 의식주를 '인내'하는 경우도 있지만, 불과 1.8미터 높이의 담장을 쳐 놓으니 정반대가 된 것이다. 치사와 비겁, 억지와 교만이 난무하고, 이는 교인들에게도 예외가 아니었다.

"인간은 자신의 이익이 걸린 문제 앞에서는 '비도덕적인 방식'으로 행동한다는 생각이 더 확실해졌다. 동시에 인간에게는 이런 욕구만큼이나, 자신의 능력으로는 선택할 수 없지만 위선을 행해서라도 선한 사람으로 보이고 싶은 욕망이 있었다(206쪽)."

저자는 이곳에서 정치를 배웠고, 참된 신앙을 어렵게 깨달았으며,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를 깊이 고민했다. 그리고 참된 도덕성은 영적인



산동 수용소
랭던 길키 | 이선숙 역
새물결플러스 | 450쪽

데서 나온다는 것을 체득했다.

"인간 자아가 근본적으로 위험받고, 자기 자신이 위기에 처하면 인간 안에서는 아주 새로운 힘이 등장, 온갖 무기를 동원해 이 위험과 싸우려 한다." '산동 수용소'를 경험하고 난 그의 결론은, 인간에게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인간의 불안정하고 불확실한 삶은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의 영원한 목적 안에서만 궁극적인 의미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인간 삶의 의미가 오직 자신의 성취에만 집중된다면, 삶의 의미는 역사의 굴곡을 따라 위태로워지고, 우리 삶은 늘 의미 없이 타성에 젖어 오락가락할 것이다. 또 인간의 궁극적 헌신이 자신에게 집중된다면, 우리 삶은 오히려 공동체를 파괴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오직 하나님 안에만, 불의와 잔인성을 일으키지 않는 궁극적인 헌신이 존재한다(449쪽)."

세종 뇌보감 골드

“치매예방, 뇌졸중예방”
“기억력을 개선합니다”

“추억도 기억이 없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세종바이오테크 SEJONGBIOTECH, INC.

세종 송보감

“충추는 당노를 잡아라”
“막힌 혈관을 뚫어라”

세종 요로청보감

“요실금, 오줌소태 개선”
“전립선건강에 탁월한 효능”

진짜 발효삼? 고려 발효삼

“면역력 증진, 기력향상”
“캡슐로 만든 발효삼상”

허락하신 자연으로 인간을 생각합니다.
www.sejongbiotech.us

목회자분에게는 특별한 혜택을 드립니다.

213-383-8899
621 S. Virgil Ave #430 LA CA 90005(미주북음방송국4층)

세리토스현대 CERRITOS HYUNDAI

EQUUS SIGNATURE 2013

5 @ THIS PRICE

Cash Out of Pocket...\$4,999
Military Rebate...\$500
College Grad Rebate...\$400
Competitive Coupon...\$1,000
Lease Cash...\$1,500
Total Drive off...\$8,399
Term...36
Miles per Year...12,000

\$499 Lease
per month plus tax

SONATA GLS 2013

5 @ THIS PRICE

Cash Out of Pocket...\$2,699
Military Rebate...\$500
College Grad Rebate...\$400
Competitive Coupon...\$1,500
Lease Cash...\$1,500
Total Drive off...\$5,599
Term...36
Miles per Year...12,000

\$109 Lease
per month plus tax

ELANTRA GLS 2013

5 @ THIS PRICE

Cash Out of Pocket...\$1,799
Military Rebate...\$500
College Grad Rebate...\$400
Competitive Coupon...\$500
Total Drive off...\$3,199
Term...24
Miles per Year...12,000

\$99 Lease
per month plus tax

ACCENT GLS M/T 2013

VIN# NDU423702

Cash Out of Pocket...\$2,899
Military Rebate...\$500
College Grad Rebate...\$400
Lease Cash...\$500
Total Drive off...\$4,299
Term...36
Miles per Year...12,000

\$89 Lease
per month plus tax

한인담당
Alex Shin
CERRITOSHYUNDAI.COM

- 믿음있는 세일즈맨 alex shin이 도와드리겠습니다.
- no credit, bad credit, 유학생환영
- 제일 빠르게 성장하고있는 현대딜러
- 최고의 가격을 보장해드리겠습니다, 믿고 맡겨주세요.

지금 전화주세요. 이 행사는 7월 31일 까지입니다.

Assurance
10-Year/100,000-Mile Powertrain Limited Warranty

Tel. 562.900.2399

18818 Studebaker Rd
Cerritos, CA 90703

*Special APR based on 36 month financing. Based on above average credit, must finance with HMF to qualify.

America's Best Warranty

COVER STORY

영원한 신랑 되신 주님께 드리는 노래

‘Song for You’



CCM 아티스트 임바울 집사 2집 앨범 발매

“노래하는 지금이 전 무척 행복합니다. 제 마지막 소원은 무대에서 주님을 노래하다가 하나님 곁으로 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힘이 다할 때까지 노래하며 살고 싶습니다.”

20여년간 교사로 재직하다 “노래를 안 하면 죽을 것 같아” 안정된 생활을 내려놓고 찬양사역자로 나선 임바울 집사.

2009년 1집 앨범 ‘아버지 나의 아버지’를 낸 이후로 4년의 시간이 지났다. 그간 그는 다양한 콘서트와 사역 무대에 섰고, 2011년부터는 일본을 투어하며 복음을 전하기도 했다. 그리고 올해 7월 ‘Song for You’라는 타이틀의 2집 앨범을 들고 나왔다.

“영원한 신랑 되신 주님께 드리는 곡”이라는 의미로 타이틀은 ‘Song for you’다. 아가서 2장 16절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에서 양떼를 먹이는구나’(My beloved is mine and I am his: he browses among the lilies. Song of Songs 2:16)라는 말씀을 기초로 했다.

그는 교회를 어린 시절 형을 따라 다니기 시작해 고등학교 시절 이후 떠났다가 1995년 다시 돌아왔다.

“1995년 한참을 돌고 돌아 결국 나를 향한 그분의 계획과 섭리를 깨닫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늘 주님은 내 대문 밖에서 기다리고 계셨는데, 나의 자만, 욕심, 의심으로 인해 스스로 문을 닫고, 빗장까지 채우고, 원망하고 질투하고 투덜대며 살았습니다. 오랜 방황 끝에 결국 주님을 만난 후 ‘나 자유 얻었네’라는 복음성가 제목처럼 스스로의 속박에서 벗어나 해방됨을 경험했습니다. 지금도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하고 복된 일이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앨범 수록곡 중 하나인 ‘신부의 노래’라는 곡이 이런 저의 마음을 담은 곡입니다.”

그는 대학 시절 각 대학에서 주최하는 여러 가요제에서 수상하며 음악성을 인정받고, 광고음악을 전문으로 제작하는 한 유명 기획사에서 CM송을 부르는 가수로도 활약했다. 또한 1979년에 개봉한 김호선 감독의 영화 ‘밤의 찬가’ 주제곡을 부르는 등 다수의 대중음악작업에 참여하며, 포크 뮤직 그룹 ‘참새를 태운 잠수함’에서 활동하기도 했다.

‘참새를 태운 잠수함’은 전인권, 강인원, 정태춘, 남궁옥분 등 당대를 대표하는 아티스트들을 배출해냈다. 임바울 집사는 당시 락블루스와 소울에

깊은 해석력을 갖춘 보컬리스트로 평가받았다.

그는 스스로도 “제 보이스톤이 가장 선명하게 잘 드러나는 장르가 블루스와 소울이라고 생각한다”며 “제가 잘 어울리기도 하고 부르기도 편한 특징의 장르인데, 그런 시도가 새롭게 이루어졌다”고 이번 앨범을 소개했다.

임바울 집사는 “세상 노래는 재미 있는데 CCM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도 ‘재미 있다’, ‘좋다’ 하면서 자연스럽게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CCM을 만들고 싶었다”고 했다.

주연중 CCM칼럼니스트는 이번 앨범에 대해 “임바울 집사는 깊은 내공을 지닌 타고난 노래꾼”이라며 “그의 보컬은 기존의 CCM계에서 들을 수 없었던 창조적인 다양함을 더해준다”고 평했다.

신곡 7트랙을 포함해 총 14트랙이 수록된 이번 앨범은 임바울 집사의 ‘일편단심 주님만을 바라보고 찬양하기 원하는’ 마음처럼, 주님과 관계에 초점을 맞춘 노래들로 채워졌다.

“나의 모든 생각들 다 버리고 주만 말씀하게 하는 것”이라고 노래하는 ‘주의 길을 가는 것’, ‘세상이 쫓고 있는 부

와 명예 비교도 안 되는 놀라운 소식이 있다”며 “아저씨 아줌마 아가씨 좋 각 귀를 기울여 들어 보세요” 하고 외치는 ‘놀라운 소식’, “마음 깊은 곳 그곳에 오랫동안 담아 두었던 그 소망 아버지”를 노래하는 ‘기적’ 등에는, 오랫동안 찾아왔던 소망 ‘하늘 아버지’와 재회한 깊은 감격과 그분에 대한 신뢰가 오롯이 담겨 있다.

또한 이권희의 ‘사명’, 윤복희의 ‘여러분’, 장종택의 ‘Desperate 라이브 앨범’에 수록된 ‘내 선한 목자 되신 분’과 ‘생명과 바꾼’ 등 기존 곡도 새로운 재해석을 시도하며 절절한 마음을 담았다.

특히 ‘놀라운 소식’은 제목 그대로 녹음을 진행하던 중 프로듀서이자 작곡자인 이권희 씨가 순간적인 영감에 의해 20분 만에 만들어 녹음까지 일사천리로 마친, 특별한 선물과도 같은

곡이라고 한다.

그는 “이번 앨범의 수록곡들은 저의 음악스타일 특성상 가라앉은 듯한 차분한 느낌의 곡이 많은 편인데, 이 곡은 경쾌한 리듬과 밝은 분위기, 그리고 유쾌하게 복음을 전하는 가사적 특징 때문에 듣는 이로 하여금 빙그레 미소 짓게 만드는 기분 좋은 곡”이라고 덧붙였다.

‘놀라운 소식’의 가사처럼 모든 걱정 근심을 모두 날려버릴 만한 기쁨과 평안을 주시는 그분, 그분은 임바울 집사에게 “완벽한 사랑 그 자체이시며, 모든 걸 주시고도 그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는 무한한 사랑, 그 자체이신 아버지”다. 또한 “그분은 내 허물을 잘 아시고 험한 어두운 골짜기에서 갈 곳 몰라 헤맸 때 길을 비추시는 그 사랑! 제가 살아가는 이유이자 찬양하는 이유”라고 임 집사는 전했다.



이제부터 수련회는 “윌리엄 케리 국제 대학교”에서!

1539 E. Howard St. Pasadena, CA 91104. 626.398.2415
conference@wciu.edu www.wciuproperties.com/

최첨단 3D 전신 스캔 검사 도입



다나병원의 3D전신 스캔 종합검사는 신체내 투입이나 통증없이 신속, 정확하며 과학적인 방법으로 뇌, 심장, 혈관, 간, 위, 척추 등 전신의 **건강상태**뿐 아니라 **위험요소**들을 미리 측정하여 **예방**도 가능하게 하는, 일찌기 경험하지 못한 전신기능의 검사를 합니다.

검사 결과는 검사 즉시 코드화된 3D 입체 칼라 영상을 통해 이상이 있는 부위와 문제를 수치와 영상으로 보여주며, 이에 따른 **최적의 건강관리와 최상의 비화학적 치료**를 안내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치료 후의 효과도 재검사를 통해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10분 미만의 초스피드 검사
- ✓ 즉석에서 결과 확인과 상담
- ✓ 최상의 치료관리법 안내
- ✓ 초 저렴 검사 및 상담비

유전자 생약치료 프로그램 (gene nutrition herbal therapy)

노화, 콜레스테롤, 혈관, 항산화, 비만, 당뇨병, 고혈압, 치매, 중풍, 관절염, 파킨슨, 유방암 전립선암, 직장암, 식도암, 난소암 등에 관련된 유전자 외에 200여개의 유전자를 분석하여 질병위험과 전반적인 건강상태에 대해 상담을 하고, **BAM(bio active molecule; 생리활성물질)**으로 치료를 합니다.



특별무술수기법에 의한 완고한 통증(요통, 오십견, 무릎관절통, 좌골신경통 등)의 치료도 하고 있습니다.

다나병원 은 Well-Being과 Aging Care를 목표로 통합의학을 지향합니다.

태바 선교후원회 부설, 다나 병원
621 S. Virgil Ave. #252, Los Angeles, CA 90005/ T. 213.487.0691

*다나병원의 수익금은 전액 선교 후원금으로 사용됩니다.

CHRISTIAN BUSINESS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Classified AD



웨밀리 자동차

FAMILY AUTO SALES

새차 리스, 중고차 최고가 매입 HONDA, TOYOTA, LEXUS, BMW, MBZ (하이급차, 고급차, 유럽차, 일제차)

Tel. 323.737.5900 Fax. 323.737.5987

933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한국에서 미국으로

송금 전문

(213) 342-7776

월서+킹슬리

자동차사고...

더 빠르고 완벽한 복원을 원하신다면 이제 아이넥스입니다.

2811 Leeward Ave., Los Angeles, CA 90005
E-mail: inexcollisioncenter@yahoo.com



최고의 기술과 완벽함을 추구합니다.
Quality Body Work & Life Time Warranty

24시간 사고발생시 연락주시면 언제든 달려갑니다!

213.383.1230

FREE ESTIMATE • TOWING

법률 문제로 답답한 가슴을!!!

공인 법무사(CERTIFIED L.D.A & PARALEGAL #227 / BOND 5785BF11090)인 제가 속 시원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변호사한테 가지기전에 "꼭 먼저" 만나 보아야 할 사람입니다!

퇴거, 파산, 이혼, 이민, 민사소송

기타 각종 법정 서류 작성

714-349-8934 (한국말) 잔 안

714-667-0728 (영어)
2112 N. MAIN ST. #290, SANTA ANA

213-487-0728 (영어)
1543 W. OLYMPIC BL. #422, LA

TONERSUM

가격 때문에 컬러 레이저 프린터 사용을 망설였던 목회자분들에게 희소식!

Only \$99.99/month (up to 2000 pages)

프린터 판매 및 리스 삼성토너 스페셜 리스트

HP, Brother Big Sale Tel. (626) 802-5712

사과 판다다

New & Used Buy & Sell

각종 조립식 선반 전문

아외용 천막 Canopy Size (5'x5') (10'x10') (10'x20')

상점 및 그리지용 Boltless Shelving

창고용 Pallet Rack

마켓용 Gondolas

중고 선반 대량 보유 99센트 마켓 선반, 창고 선반 수량 불문 현찰 매입

조립식 선반을 전문으로 취급하여 딜러임을 보유한 선반 전문 회사

(323)855-5687 / (213)200-3050 / (213)623-5491

646 S. San Pedro St. Los Angeles, CA 90014 Downtown LA (Between 6th, 7th St)

가 주 L.A. 커튼

"우드셔터, 각종 블라인드, 썬 스크린 롤러 Shade"

거리 불문 무료견적

HunterDouglas Sunland Shutters 공인딜러

Tel. 213.447.1101

43406 Standcliff Ave. Lancaster, CA 93535

K.T. 택배 T. 213-365-8588

말도 안되는 가격 \$ 6.99 초고속 픽업 & 배송!!

전화 한통화로 당일무료 픽업!

무료포장 (박스, 충격흡수제 무료)

최저 가격!! 인터넷 사업자 대박우대

소량화물 4개중 1개 공짜!

"가격은 낮추고 서비스는 최고로 모시겠습니다"

K7 법무사 사무소

소장: Kenny Oh (323)377-5702 ko7law@gmail.com

법적 해결

변역 (학술/사업/개인) | 법정통역, 소송/방어서류

민사법 의도/과실/사기/부당 행위 피해, 입주자분쟁(소송/방어) 접근 금지 법원 명령

계약법 작성/분석/분쟁/수금문제 가정보약식/일방이혼

1543 W. Olympic Bl. #580 L.A. CA 90015 Law Office of R. Song

모/든/문/제/체/류/신/분/과/무/관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귀국 · 시내 · 타주이사 · 차량운송

한국식 포장이사도 해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무료전화 877-580-2424 310-538-3333

18118 S. Broadway st #B Gardena, CA90248 www.easy2424.com

손바느질 양복의 명가

골드핑거

T.213.386.5858

직접재단/직접재봉/남녀맞춤/명품 옷수선

Master Tailor 김병호

975 S.Vermont Ave., #102, Los Angeles., CA 90006

전기 . 철공

계단, 펜스, 창틀, 보조문

용접, 게이트

경남 철공소

모터 수리

213-256-4884

A-1 정비 오일 교환

엔진 & 미션 전문 76 오일사용

10% 할인

✓트랜스미션 ✓타이밍벨트

✓브레이크 ✓투입정비

Tel. 323.737.2922

Trans (323)731-0613 Engine (323)752-2971

커피 미니 자판기

CoffeeTreeUSA

따스하고 맛있는 커피를 저렴한 가격으로 간편하게 즐기세요.

밀크커피/한국차(유자차, 검은콩 울무차, 대추 생강차) 핫초코/카푸치노/블랙커피

T.213-272-7502

www.Coffeetreeusa.com

1513 S. Victoria Ave Los Angeles, CA 90019

한방생리대 도.소매

G. Together Inc.

- 인삼생리대
- 익모초생리대
- 한방생리대

Edward Kim 김인태, CEO

213-392-2323 (Korean) 213-500-5896 (English)

3544 W. 3rd St. Los Angeles, CA 90020 / G_Together_Inc@yahoo.com

베데스다 의료 봉사센터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의료혜택을 못받는 분들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치과와 약, 한방등의 진료의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문의전화 213-384-7078

빙베어 농축 흑염소

- 상왕 흑염소 골드 노년기 신기허약 보강, 신경통 골다공증 특효
- 황후 흑염소 골드 불임, 피부노화 예방, 수술 후 원기회복
- 황제 흑염소 골드 양기, 원기 보충, 성인병 예방
- 왕세손흑염소 골드 신체발육, 시력 향상, 두뇌활성화

한달분 [녹용2냥] \$200

213.388.9099 / 1.800.491.2440

922 S.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6

스마트 월드

FUJITA 카멜레온 커버

독일 최고의 엔지니어링 시스템

카멜레온 커버 CAMELEON COVER USA

현재 인기 건강 필라보다 30 배 뛰어난 효능!

젊은 샐리온! 자동차 엔젤 커버 \$30 강력안염이온 • 원적외선 방출

졸음 운전 때문에 고통 받는분 차안 각종 냄새 완화를 원하시는분 승차력 관력 통증 완화를 원하시는분

타사 전신 안마기와 비교할 수 없는 품질과 성능 \$3,900

로메오 833 S.Western Ave, #22 Los Angeles, CA 90005 Tel 323.454.7872

전단지

문의 : 213-739-0403

기독교일보 광고사업팀

디자인에서 인쇄, 배포까지

그냥 한번에 해 주는데 없을까?

교회 행사용 전단지, 브로셔, 교회배너..

one stop

www.phhyundai.com

북미 최대 한인 현대 딜러



푸엔테힐스 현대 SUPER STORE

독립기념일맞이 BIG EVENT



좋은이자율! 최상의 서비스! 현대를 만나는 가장 좋은 곳!

갖고 싶은 현대차를 가장 좋은 이자율로 모시고, 최상의 서비스로 고객에게 더욱 만족을 드립니다! 지금 만나보세요!



\$92 +TAX



36 Month lease / 12k mile / T.D.O 2,999
MSRP \$16,890 (STK #398513)
PH HYUNDAI D/C \$973 MILITARY REBATE \$500
COMP. COUPON \$500 COLLEGE REBATE \$400



\$123 +TAX



36 Month lease / 12k mile / T.D.O 2,999
MSRP \$22,375 (STK #713499)
PH HYUNDAI D/C \$1,325 LEASE CASH \$1,000
ROYALTY REBATE \$500 MILITARY REBATE \$500
COLLEGE REBATE \$400



\$599 +TAX



24 Month lease / 12k mile / T.D.O 6,999
MSRP \$66,650 (STK # 051811) Demo
LEASE CASH \$1,000 COMP. COUPON \$1,000
COLLEGE REBATE \$400 MILITARY REBATE \$500

America's Best Warranty[®]
10-Year/100,000-Mile
Powertrain Limited Warranty

HYUNDAI Assurance

다양한 차량과 색상 보유! 자체 파이낸싱과 특별할인 프로그램!

HYUNDAI 100,000 REASONS EVENT
HYUNDAI 100,000 MOTIVOS



Sales 스티브 장 626.513.4005



Fleet Manager 찰리 정 626.513.4981

PH 푸엔테힐스 현대 Puente Hills Hyundai HYUNDAI

1-888-212-6431

17621 Gale Ave., City of Industry, CA 91748

LA한인타운과 오렌지카운티에서 20분거리

All prices exclude government fees and taxes, any finance charges, dealer preparation charges, and any emissions testing charges. Please contact Dealer for complete incentives and program details. Subject to change without prior notice. All prices, specifications and availability are subject to change without notice. Contact Dealer for current information. Your actual mileage may vary depending on how you drive and maintain your vehicle. Actual mileage will vary with options, driving conditions, driving habit and overall vehicle condition. All vehicles subject to prior sale. Expires 24 hours after publication.